세계가 본
김정은령도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외국문출판사
주체111(2022)년

세계가 본

김정은령도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외국문출판사
주체111(2022)년

머 리 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을 이끄신지 10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 10여년간 조선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는 실로 놀랄만한 발전과 변혁을 수놓아왔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 세인을 경탄시키는 특대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세계의 많은 나라 정치가들과 전문가들, 각계인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정치무대에 공식등장하신 첫 시기부터 그이의 정치활동을 각별히 주시하며 깊이 관심하고 연구하여왔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를 받으시는 매혹적인 령도자이시고 짧은 기간에 조선을 강력한 나라로 이끌어올리신 리상적인 지도자이시며 세계적판도에서 첨예하였던 국제 및 지역문제해결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 명망높은 정치가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본사편집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례없는 경탄과 열화같은 칭송, 기적과 변혁의 새시대를 수놓아가는 조선의 현실을 통하여 **김정은**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 특출한 외교술과 숭고한 인민적풍모를 보여주는 도서 《세계가 본 **김정은**령도자》를 발행한다.

차 례

매혹적인 령도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의 령도자로 공식등장하시자 세계언론은 법석 끓었다.

《조선에서 김정은시대가 닻을 올렸다.》, 《김정은시대의 개막》, 《담담하고 침착하면서도 여유작작하고 확신성있는 어조로 지도력과 자신심을 과시하고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

첫 모습

력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큰 관심을 모으시다

2011년 12월 17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이후 10여일동안 구글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영어권언론계의 보도자료가 무려 6 740만건으로서 시간당 약 23만건씩이나 쏟아졌던것으로 집계되였다.

영어권밖의 자료까지 추산할 때 그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2010년 9월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거되시였을 때에도 미국의 《타임》과 일본의 《산께이신붕》, 《요미우리신붕》, 교도통신, 지지통신을 비롯한 세계언론들은 이 소식을 2010년 세계10대뉴스의 하나로 선정했었다.

중국의 《인민일보》는 그이를 《신비의 지도자》라고 하였으며 미국의 CNN방송도 그이를 2010년 세계10대명인으로 선정하였다.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은 그이를 《2011년에 주목할 인물》로 정하였다.

2012년에 들어와서도 세계의 주요보도매체들은 그이를 《올해의 주목되는 인물》로 선정했다.

2012년 2월의 마지막호표지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상사진을 모신 《타임》은 2012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국가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특출한 공적을 쌓은 인물들을 온라인투표방식으로 선출하고 그이를 《올해의 인물》 제1위로 선정하였다.

세계언론들은 《력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커다란 관심을 모으신 가장 젊은 지도자》, 《공식등장하자마자 일약 세계최고의 관심인물로 되신 조선의 령도자》 등으로 커다란 관심을 드러냈다.

대국상에서 본 모습

대국상의 나날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은 하늘도 울릴 감동을 낳았다.

세계언론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야외조의식장을 찾는 사람들과 밤을 새워 호상을 서는 인민들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발열붙임띠와 귀덮개 등 수많은 보온기재들을 보내주도록 하신 사실, 조의식장들의 주변에 더운 차와 사탕물을 봉사하는 매대들과 의료초소, 몸을 녹일수 있는 가설물들과 뻐스들을 설치, 대기시키도록 하신 사실 등을 전하였다.

그리고 인민들이 추위에 떨지 않게 영결식행사도 추위가 조금이라도 풀리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특별조치까지 취해주신 사실들에 대해서도 전하면서 이런 일들은 세계적으로도 없었다고 보도하였다.

세계의 정세분석가들과 고위정객들은 대국상의 난파를 사랑의 힘으로 가셔내고 인민을 일으켜세워 보다 더 강한

일심의 결정체로 결합시켜나가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비범한 정치가의 모습을 보았다고 평하였다.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신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중앙추모대회까지의 100일간 조선에서는 당과 국가의 최고직책이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시고 자신에 대한 추대가 아니라 수령영생위업실현을 앞에 놓으신것이였다.

2012년 1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금수산기념궁전(당시)에 생전의 모습으로 모시고 그이의 동상을 정중히 건립하며 그이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명절인 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하고 전국각지에 그이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며 영생탑을 건립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특별보도가 온 행성에 울려퍼졌다.

2월 3일에는 **김정일**훈장과 **김정일**상, **김정일**청년영예상을 제정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되고 며칠후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수여할것을 결정한 소식이 전해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0돐을 맞는 2012년 2월 16일에는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함

에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결정이 공표되였다.

2012년 4월 11일에 진행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2012년 4월 13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참석하에 평양의 만수대언덕에서 성대히 거행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식은 세계의 정치가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로씨야의 한 시인은 《지난 시기 맑스의 유해가 이국땅 런던의 하이게이트묘지에 안치되고 엥겔스의 유해를 넣은 함을 도바해협에 흘러보낸 소식들은 유럽사람들을 슬프게 하였다. 사회주의배신자들이 쓰딸린의 시신을 화장해버리고 그의 동상들을 없애버린 행위를 두고 뜻있는 사람들은 분노를 금치 못해하였다.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볼 때 평양의 동상제막행사는 참으로 큰 대조를 이루며 세계를 감동시켰다.》고 하였다.

2013년 4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영구보존하고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법화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을 금수산

태양궁전에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전민족적인 사업으로 더욱 숭엄하고 완벽하게 꾸리며 백방으로 결사보위할데 대한 국가적의무를 규정한 금수산태양궁전법이 채택되였다.

그이의 도덕의리는 혁명선배들에 대하여서도 무한히 고결하다. 그이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과 전쟁로병들을 혁명선배로 내세워주시고 극진한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으며 그들의 업적과 위훈을 길이 빛내여주고계신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건립하도록 하시고 전국로병대회들에 참석하시여 축하연설도 하시였으며 그들과 기념사진도 찍으시였다. 전쟁로병들에 대한 전사회적우대조치들을 취해주시고 전국각지에 전쟁로병보양소들도 새로 일떠세워주시였다.

평양에서 거의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로병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전쟁로병들에게 깊이 머리숙여 인사드리는 그이의 모습을 세계는 커다란 충격속에 보았다.

《아시아타임스》의 예측

2012년 3월 중국홍콩신문 《아시아타임스》는 《**김정은**령도자 통일운동주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의 5천년력사에 가장 위대한 민족적영웅, 애국자의 한사람으로 반드시 기록되실것이다. 그이께서는 희세의 정치가, 군사가로 명성떨치실것이다.

김정은령도자는 자주적대가 강하고 뛰여난 군사가이시며 한없이 인자한 정치가이심이 틀림없다. 그이를 모심으로써 조선에는 황금시대가 도래할것이다. 그이께서 조선인민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위업을 이룩하고 통일조선을 무궁번영에로 이끄실 그날은 오고야말것이다.

…

미군은 인구가 밀집되여있는 아시아중심부에서 전면전쟁발발의 항시적인 위험을 조성하고있다. 두 핵보유국 즉 조선과 미국사이에 핵전쟁이 일어날수 있는것이다.

조선반도에 국한되였던 지난 조선전쟁과는 달리 제2의 조선전쟁은 자연히 열핵전쟁으로 확대되여 미국본토에로 번져질것이다. 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미군은 비무장지대에서 서울이남 평택으로 물러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군은 새 미군기지에도 강력한 정밀타격을 가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더 나아가 당근과 채찍을 능숙하게 활용하시여 새우를 미끼로 고래를 낚으실것이다. 그이께서는 분명 미국이 스스로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과 관계정상화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계략을 쓰실것이다. 그이께서는 최남단의 어떠한 전략적목표들도 정밀타격할수 있는 새형의 미싸일들로 무력을 계속 보강하실것이다. 조선인민군의 세계적인 타격집단은 멀지 않아 미국본토전역을 유효사거리에 두는 이동식대륙간탄도미싸일로 장비하는 사업을 완료하게 될것이다. 미국사람들은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는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것을 당연히 깨닫게 될것이다.

조선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그날 조선인민을 비롯한 세계인민들은 **김정은**령도자이시야말로 가장 으뜸가는 령도자로서 통일조선을 대표하고 이끄실 유일한 정치가이시라는것을 똑똑히 알게 될것이다.》

그러면서 신문은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미국을 길들여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두 제도가 공존하는 맑은 아침의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실것이라고 하면서 조선민족의 민심은 어차피 그이께로 쏠릴것이다고 썼다.

신문은 **김정은**령도자는 훌륭한 경제지도자이시라고 하면서 2012년에 세계는 그이께서 기적이라 아니할수 없는 사변을 주도하시는것을 목격하게 될것이다, 가혹하기 그지없는 지속적인 제재와 미국과의 불안정한 기술적전쟁상태속에서도 조선은 번영을 이룩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은시대의 개막

2012년초엽 세계의 시선은 조선으로 쏠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후 조선은 어느 길로 나갈것인가, 어떤 정책을 실시할것인가, 새로 출현한 **김정은**조선이라는 거대한 함선이 격변하는 력사의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갈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모으고있었다.

이러한 때인 2012년 4월 15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하시였다.

그이의 연설은 첫 공식연설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조선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국이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김정은**령도자 처음으로 공개연설, 력사적인 연설로 세계무대에 등장》, 《담담하고 침착하면서도 여유작작하고 확신성있는 어조로 지도력과 자신심을 과시하고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김정은**최고사령관은 이 한마디로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이의 연설은 성공적이였다. 특히 연설마감에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라고 하시는 모습은 무척 세련되고 로숙하였다.》, 《조선에서 **김정은**시대가 닻을 올렸다.》, 《**김정은**시대의 개막》 등으로 중국, 로씨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의 보도매체들이 그이의 연설을 특대뉴스로 전격보도하였다.

미국신문 《뉴욕타임스》는 조선령도자의 연설은 젊음으로 약동하는 새 지도부의 령도력을 과시하는것이라고 평하였다.

AP통신은 《**김정은**령도자는 외부의 각이한 억측들을 일축해버리며 조선령도자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김정은**령도자께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이 펼쳐놓은 강국에로의 길을 자신만만하게 걸어가고있다.》고 평하였다.

인민의 어버이

인민사랑의 정치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펼치시는 인민사랑의 정치는 국제사회의 주요관심사로 되고있다.

미국의 어느한 연구소는 그이의 정치방식을 소개하는 글에서 **김정은**령도자께서 현지지도하시는 영상들을 보면 대중적이고 다심하신 모습으로 일관되여있고 강조하시는 내용들을 분석해보면 인민생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느낄수 있다고 하였다.

도이췰란드 MS려행사는 인터네트에 올린 글에서 인민사랑은 **김정은**령도자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며 그이께서 펼치시는 정치의 최고원칙이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시며 령도자도 인민을 위하여 있다고 간주하고계신다고 하였다.

2012년 설명절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여 원아들의 볼을 다정히 쓰다듬어주시면서 원아들의 생활형편을 하나하나 보살펴주시던 모습이며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행사에 참석하시여 연설까지 하시며 세상에서 제일 훌

룽한 사회주의강국을 만들어 후대들에게 넘겨줄것이라고 하시던 모습, 새로 건설하는 유원지건설장을 여러 차례나 찾으시여 종이우에 그림까지 그려가시며 인민의 행복의 무릉도원을 마련해주시던 모습,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살림집들에 입사한 로동자가정들과 교육자가정을 찾으시여 그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생활의 구석구석을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모습들은 세계의 통신, 방송들에 널리 보도되였다.

2015년 8월말 조선의 북변 라선시 선봉지구(당시)의 큰물피해상황을 놓고 세계의 언론들은 선봉지구가 도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다시 일떠서려면 몇해가 걸릴지 알수 없다고 보도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라선시피해복구사업을 중요의제의 하나로 토의하도록 하시였다.

인민군대를 동원하여 피해복구사업을 내밀도록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하늘길, 배길, 령길을 달려 피해현장까지 찾아가시여 복구정형을 료해하시고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하여 횡포한 물사태가 모든것을 휩쓸어간 페허우에 불과 30여일만에 희한한 선경마을이 일떠서게 되였다.

큰물피해복구를 완전히 끝냈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TV와 의복류, 경질유리그릇, 식료품은 물론 성냥과 위생종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활필수품을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천지개벽된 라선시 선

봉지구 백학동(당시)을 또다시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에게 당창건기념일(10월 10일)전으로 라선시피해복구를 끝낼데 대한 명령을 관철하느라 수고들이 많았다고, 자신께서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마음이 놓일것같아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오늘 여기로 오는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평양의 대동강반에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를 통해서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세계를 실감할수 있다. 전자자리길모양으로 타래쳐오르게 시공한 53층살림집을 비롯하여 고도로 현대화, 예술화된 미래과학자거리의 살림집들은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낸다.

이곳을 돌아본 많은 외국인들이 이 멋진 살림집들의 주인들이 다름아닌 과학자, 교육자들을 비롯한 평범한 인민들이며 집값이 《0》이라는 사실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세계의 언론들은 인민을 그처럼 열렬히 사랑하시며 인민의 꿈을 현실로 펼쳐가시는 인민의 지도자이시기에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그처럼 믿고 따르는것이라고 평하였다.

그이의 멋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훌륭히 건설된 은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 과학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 거리를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아하시였겠는가.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

그이께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보금자리가 마련되고 원아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난다는 소식을 들으시였을 때에도, 인민들에게 물고기대풍을 마련해주시고 그들이 좋아한다는 소식을 들으시였을 때에도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여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같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들을 더 잘해나가자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멋, 그것은 한마디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이며 나날이 높아가는 인민의 웃음소리라고 할수 있다.

사랑이 아름답고 숭고한것은 거기에 바치는 희생이 있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 있기때문이다. 이런 사랑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해 고생도 락으로 여기는분이시기에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창조물을 일떠세우고 인민들이 즐

거워하는 모습에서 힘을 얻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고계시는것이다.

신뢰할수 있는 지도자

정치가들이 공약을 리행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선거전에 많은 공약들이 람발되지만 후에는 정치의 뒤전에 밀려나거나 뒤집혀지는것들이 태반이다. 그로 하여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정치적혼란과 경제파동, 민심의 악화, 사회적불안정 등 심각한 사태들이 초래되고있다.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그러한것들을 전혀 찾아볼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을 나라의 근본, 모든 기적창조의 원동력, 력사발전의 가장 힘있는 주인으로 내세우고계신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그이의 정치리념이다.

이로부터 그이께 있어서 인민과 하시는 약속은 가장 신성한것으로 되고있으며 그 철저한 리행도 드팀없는것으로 되고있다.

평양시중심부의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일떠선 돛배모양의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경치좋은 연풍호반에 훌륭히 일떠선 연풍과학자휴양소, 평양시교외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새로 건설된 로동자합숙, 수도 평양과 원산을 비롯한 각지에 훌륭히 일떠선 육아원, 애육원, 양로원 등은 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들과 하신 약속에 의해 마련된 인민을 위한 건축물들이다.

그러한 사실들중에는 철없는 원아들과의 약속을 지켜 2015년 1월 1일 신년사를 마치시는 길로 평양육아원, 평양애육원을 찾으시여 새해를 맞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신 이야기도 있다.

2022년 2월 12일 평양의 화성지구에서는 지심을 흔드는 요란한 폭음이 울렸다. 2021년에 이어 두번째로 되는 1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착공을 알리는 발파소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날의 착공식에 참석하시여 격동적인 연설을 하시고 발파의 폭음을 울리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2021년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도 참석하시였었다.

그이께서 연설에서도 언급하신바와 같이 2021년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고 난관이 겹쌓인 간고한 조건에서 진행되였다. 2022년에도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는 계속되고있으며 세계적인 보건위기 역시 종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있다. 이런 속에서도 조선이 살림집건설을 중단하지 않고 막대한 지출을 계속하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2021년초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5개년계획기간에 전국적으로 살림집건설을 내밀면서 수도에만도 해마다

1만세대씩 5만세대의 살림집을 일떠세울것을 결정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당대회의 결정을 조선로동당과 정부 그리고 자신께서 인민들과 한 약속으로 간주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에서 화성지구 살림집건설공사를 포함하여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목표가 성과적으로 달성되면 인민들과 한 제일 중요한 약속을 지키게 되며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가 철저히 해결되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지금이 그 어느때보다 조건과 환경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당과 정부가 해마다 수도에 살림집을 1만세대씩 건설하는 사업을 완강히 내미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인민과 한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하며 반드시 지킬것이라는 그이의 의지를 대변한것이 바로 송신, 송화지구와 화성지구에서 울린 폭음이라고 할수 있다.

국제사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들과 하신 약속을 철저히 리행해가시는 사실들을 전하면서 《대단히 믿음이 가고 신뢰할수 있는 지도자》, 《허심탄회하고 투명성있는 지도자》, 《언행일치형의 지도자》로 평하였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 깃든 이야기

인터네트상을 통해 소개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였었다.

양덕온천은 조선에서 약리적작용과 치료효능이 매우 높은 온천들중의 하나이다. 한겨울에도 더운 김을 뿜어올리며 온천물이 콸콸 솟구쳐오르는 용출구를 보면 마음마저 순간에 더워지는것같다.

이 용출구는 사연깊은 이야기들을 전하고있다.

2018년 8월중순은 류례없는 폭염의 지속으로 숨쉬기조차도 가쁘던 시기였다.

이러한 때 온몸을 땀으로 적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곳을 찾으시여 용출구앞에 이르시였다. 이해따라 유별한 무더위속에 예견치 않았던 소낙비까지 쏟아져내리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쉬임없이 뿜어나오는 용출구만을 관심하시였다. 앞으로 이곳에 솟아오를 온천문화휴양지의 미래를 그려보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리고 80℃나 되는 온천물에 손을 담그어보시였다.

휴양지건설이 한창이던 10월에 또다시 이곳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마실 물인데 우리가 먼저 맛보자고 하시며 온천물을 몸소 맛보기도 하시였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류달리 눈길을 끄는 곳은 야외온천장의 닭알삶는 장소이다. 이곳에서 닭알을 직접 삶아먹는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닭알을 구럭에 담아 70~80℃의 온천물에 담그어놓고 얼마간 있게 되면 거기에 풀려있는 약효성분들을 빨아들인 반숙된 닭알로 된다. 이렇게 삶은 닭알은 연하고 고소한 맛이 나며 소화도 잘된다. 여기에도 사연이 있다.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80℃이면 닭알을 삶을수 있지 않는가고 수행원들에게 물으시였다. 그리고 용출구에 가서 닭알을 직접 삶아보자고 하시며 닭알이 익는 시간까지 측정하시였다. 시간이 흘러 닭알이 익었을 때 그이께서는 만족해하시며 여기에 닭알삶는 터를 만들어주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후 또다시 이곳을 찾으시여서는 조미료를 놓아줄수 있게 벽장도 설치해주자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휴양지에는 그 이름도 특색있는 닭알삶는 터가 생겨나게 되였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또한 시선을 끄는것은 스키장들이다. 수평승강기와 끌림삭도, 의자식삭도들을 타고 정점으로 오르며 휴양생들은 누구나 기쁨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이 삭도들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최상으로 담보해주신분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완공을 앞두고 또다시 이곳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시운전을 하는 삭도를 타시고 스키장정점에까지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바로 이런분이시다. 여러해전 마식령스키장의 시험삭도에 오르신것을 비롯하여 대중문화휴식터들인 릉라인민유원지의 회전매와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의 관성비행차, 새로 만든 현대적인 지하전동차와 무궤도전차, 궤도전차의 시운전들에도 그이의 이러한 헌신의 사연들이 있다.

이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

에 떠받들려 세계가 주목하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태여난것이다.

인민만세를 부르시다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거행될 때였다.

당시 서방은 조선이 열병식에서 새로운 전략무기들을 공개할수 있다며 불안과 초조에 싸여있었다. 그들은 조선의 령도자가 연설을 하는 경우 핵무기와 미싸일에 대해 반드시 언급할것이라는 예측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은 너무도 예상밖이였다. 세인이 놀라움속에 평한바와 같이 그이의 연설은 시종 《인민》이라는 두 글자로 일관된 연설, 인민으로 시작하여 인민으로 끝난 인민을 위한 연설이였던것이다.

외신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내용을 전하면서 《25분동안 진행한 연설에서 〈인민〉을 97번이나 언급했다.》고 회수를 세여가며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인민의 불같은 충정이 굽이치는 승리의 광장, 경축의 광장에 서고보니 우리 인민을 떠난 오늘의 이 자리를 어떻게 생각이나 할수 있으랴 하는 인민에 대한 고마움에 지금 이 시각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의 정겨운 눈빛들을 마주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력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우리 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라고 선언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고, 근로하는 인민이 영원하듯이 인민을 위하여, 인민과 함께 투쟁하는데 영원한 정의와 승리가 있다고 하시였다.

우리 당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라고,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직할것이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올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연설의 마감에서 그이께서는 **《우리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아갑시다!**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라고 격조높이 웨치시였다.

세계언론들은 《〈인민만세!〉로 끝마친 **김정은**령도자의 연설》, 《인민에 대한 다함없는 례찬》, 《숭고한 인민관이 넘치는 연설》, 《인민앞에 하시는 엄숙한 맹세》 등의 제목을 달고 그이의 연설내용을 속보로 전하였다.

미래를 사랑하시는분

국가가 아이들의 명절을 쇠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로 이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를 보면서 세인이 특히 감복하고있는것은 후대들에 대한 그이의 각별한 사랑이다.

예로부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며 지어낼수도 강요할수도 없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했다.

2012년 6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에 참석하시여 축하연설을 하실 때였다.

그이께서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하시며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세대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것을 축복해주시자 대회장은 삽시에 감격의 바다로 변하였다. 교원들도 눈시울을 적시고 아이들도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였다. 그이께서는 2만여명이나 되는 대표들을 위해 무려 20번이나 자리를 옮겨가시며 기념사진도 찍으시였다.

세계의 통신과 방송들은 조선의 어른들이 자기 령도자를 우러러 눈물을 흘리며 환영하는것은 많이 보아왔지만 아이들이 그처럼 열광적으로 환영하는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고,

조선에서처럼 국가가 거리에 당기와 국기까지 띄워놓고 아이들의 명절을 쇠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고 광범히 보도하였다.

아이들의 천국

단마르크의 저명한 작가 한스 안데르쎈이 쓴 동화 《성냥파는 아이》는 추위와 굶주림도, 부러움도 없는 행복의 천국에서 살아보고싶은 불쌍한 한 어린 처녀애의 환상을 담고있다.

그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 훌륭히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현실로 펼쳐진듯싶다.

학생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겉모습부터가 특색있다. 두팔을 벌려 아이들을 품어주는 어버이품을 형상하여 웅장하게 일떠선 독특한 건축물과 화강석과 고급건재들로 품위있게 장식된 궁전의 자태는 볼수록 환희로운 감정을 더해준다.

궁전앞마당에 있는 동화적형상의 조각군상도 그러하다. 커다란 금빛열쇠를 안고 기쁨에 넘쳐 행복의 꽃수레를 타고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하늘나라의 어린 천사들을 보는듯하다.

궁전의 내부에 들어서면 역시 신비로운 동화세계가 펼쳐진다. 현관홀의 바닥과 벽면에 형상한 아름다운 꽃송이와 꽃망울들, 머리우의 휘황한 무리등, 사방에서 반짝이는 보

석빛들과 동심적특성을 반영하여 부각된 장식들, 포근한 정서적환경속에 울리는 맑은 선률 등 황홀한 무아경이 펼쳐진다.

궁전에는 콤퓨터소조실, 물리소조실 등이 있는 과학동과 수예, 서예, 가야금, 손풍금, 성악소조실과 전자악단종합훈련장 등이 있는 예능동, 예술종합훈련장, 특색있게 꾸려진 여러 홀들이 있다.

모든 소조실들과 훈련장들에는 교육설비들이 높은 수준에서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다. 각종 소조실들이 과목별, 종목별, 부문별로 특색있게 꾸려져있다.

그 어떤 예술공연도 원만히 펼쳐보일수 있는 훌륭한 극장과 국제경기도 치를수 있는 수영관, 체육관도 있다.

《아이들의 호텔》로 불리우는 합숙에서는 지방에서 온 학생소년들에게 온갖 편의를 도모해주고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아이들은 유능한 지도교원들에 의하여 자기들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워가고있다.

다른 나라에서라면 억대의 재벌들이나 특권층의 자식들이 아니고서는 꿈도 꿀수 없는 호화궁전의 주인들은 로동자, 농민, 사무원 등 평범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이다.

이곳을 돌아본 외국인들은 만일 자기가 조선의 어린이로 다시 태여난다면 이러한 《천국》의 《왕자》나 《공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공상에 빠졌댔다고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이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아이들의 모든 꿈과 희망을 훌륭히 꽃피워주고계신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 아이들을 위하여서는 억만금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후대관, 미래관이다.

그이의 이런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개건될수 있었다.

2015년 11월 새로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이라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완전히 변모되여 처음 와보는것같으며 마치 동화세계에 들어갔다 나온것만 같다고,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로 훌륭히 전변된 궁전을 리용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오늘 조선에는 이런 훌륭한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가 전국각지에 210여개나 된다.

20년, 30년후를 내다본 육아법

2021년 6월중순 평양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참석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기하시였다. 그이의 제기는 전원회의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으며 그 집행을 위한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2022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을 새롭게 채택하였다.

돌이켜보면 조선에서는 1940년대후반기에 벌써 많은 국가자금을 들여 각지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내오고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보육교양하는 체계를 세웠다.

조선에서 채택된 아이들을 위한 첫 법인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사회주의로동법(1978년), 인민보건법(1980년)과 같은 법들보다도 먼저 채택(1976년)되였다. 이 법의 채택으로 1970년대만 놓고보더라도 전국적으로 1960년대에 비해 탁아소수는 4.6배로, 탁아소에 다니는 어린이수는 3.6배로 늘어나 조선은 탁아소의 절대수에 있어서 단연 세계의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그후 어린이보육교양법은 1999년, 2010년, 2013년, 2014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보충되였다.

새롭게 채택된 조선의 육아법은 1976년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의 부속법으로서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어린이양육조건보장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하고있다.

4개 장, 61개 조항으로 된 육아법의 조항들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국가는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새로 채택된 육아법에는 질이 담보된 원료를 젖가루생산에 리용하며 젖가루생산공정과 설비를 현대화하고 젖가공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규격에 맞는 젖가루를 생산할데 대한 문제, 해마다 8월과 9월을 탁아소지원월간으로, 3월과 10월은 학교지원월간으로 정하고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탁아소, 유치원건설위치선정문제,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는 아동문학예술작품창작에 관한 문제들도 반영되여있다. 지어는 탁아소, 유치원들에 필요한 설비와 악기, 놀이감 등 비품들과 먹는물, 방안온도문제, 난방 및 취사보장에 필요한 전력과 땔감보장문제,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관리문제까지 규제되여있다.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을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땅에 태여나는 아이들, 자라나는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면 앞으로 20년, 30년후에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더욱더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고 공화국의 국력이 장성강화되게 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후대들을 위하여 국가가 당하는 손실은 손실이 아니며 어린이들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이 지출될수록 조국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철한 정치신조가 조선의 육아법의 채택과 같은 충격적인 사변을 안아왔던것이다.

세인의 평가

로드맨의 소감

2013년 2월말 미국 NBA의 이전 롱구명수 데니스 로드맨과 그 일행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적대국의 시민으로서 그의 우려심은 은연중 컸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만나뵙는 첫 순간부터 그의 위구는 사라져버렸다.

그이는 지금까지 그가 만나본 정치가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사상과 정견, 국적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치의 간격과 편견도 없이 그와 일행모두를 따뜻이 대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그는 순간에 매혹되였다.

그이께서는 로드맨에게 그가 좋아하는 려송연을 선물로 주시였다.

뜻밖의 선물을 받아안고 행복감에 휩싸여 기념수표를 해줄것을 정중히 부탁하는 그에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환한 미소속에 활달한 필체로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2.28 김정은》**이라는 친필까지 써주시였다.

한없이 소탈하고 인자하시면서도 다심하신 그이의 인품,

덕망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끌려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참석하에 평양의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진행된 미국선수들과 조선선수들과의 혼합경기가 끝났을 때 로드맨은 그이에 대한 최대의 성의와 존경의 표시로 1번을 새긴 자기 팀의 경기복장을 선물로 드리였다.

그이를 만나뵈온 소감을 그는 이렇게 밝혔다.

《**김정은**령도자는 대단히 젊으신분인데 그렇게 친화력과 감화력이 큰줄은 몰랐다. 그이는 대단히 멋있는분, 한없이 친근하고 소박한분, 대단히 박식한분이시였다. 순간에 우리 모두가 완전히 매혹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미국인으로서는 제일 첫번째로 만나뵈온 로드맨은 일약 유명인물로 되였다.

귀국후 그는 기자들에게 **김정은**령도자는 아주 위대하며 솔직하고 멋있는분이시라고, 조선사람들은 그이를 단순히 좋아하는것을 뛰여넘어 사랑한다고, 자기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정말로 훌륭한분이시라고 말하였다.

세계언론의 평

2019년 8월 5일 미국신문 《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미국의 국가리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이시라고 격찬한 미해군분석쎈터 국장의 글을 실었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거 미행정부들은 조선에 대하여 같은 방식을 거듭하

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대통령이 **김정은**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 나섰을 때 그 무엇인가 새로운것이 시작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역시 선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전략적인내정책을 유지하였으며 결과는 역시 전진이 없는 상태이다.

미국의 보수계층은 최대압박이 이미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것이다.

조선은 미국의 핵심리익을 좌우하는 나라이며 조선정책의 최고결정자인 **김정은**국무위원장은 미국의 국가리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이다.

미국은 문제를 유엔에 가져가기 전에 조선과 공존할수 없겠는지 따져보는것이 필요하다.

좋든싫든 핵을 가진 조선과 공존해야 할것이다.

전문가들과 정보기관들이 말하는것처럼 **김정은**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우리모두가 믿는다면 대안은 그것밖에 없을것이다. 미국은 눈앞의 현실을 다루어야지 미국이 바라는 가상적인 《현실》을 다루어서는 안될것이라고 간주한다. 미국은 잠에서 깨여나 현실을 보고 창조적으로 전진해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과 관련하여 미국 《엔케이 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한명의 악성비루스피해자도 없이 인민들이

모두 건강하여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표시하시였다. 또한 올해에 예상치 않게 맞다든 방역전선과 재해복구전선에서 발휘하고있는 인민군장병들의 헌신과 로고에 눈물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최대의 경의와 뜨거운 감사를 보낸다고 하시였다.

자기 인민과 군대에 대한 자랑과 사랑, 존경의 어조가 어려있는 이번 연설은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감동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여있다.

충격, 감탄, 칭송

- 2020년 3월 중국망사용자들이 인터네트에 올린 글

○ 세계에서 비루스와 싸워이긴 첫 나라, 조선인민의 영명한 수령 **김정은**국무위원장과 조선인민에게 축복을 드린다!

○ 위대한 수령, 현명한 령도, 자기 나라와 인민의 리익을 위해 복무하는데 대해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

○ **김정은**국무위원장 정말 세다. **김정은**동지 만세! **김정은**장군과 조선인민 대단하다. 존중하고 탄복한다.

○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세계에서 유일한 《깨끗한 땅》을 계속 보호해줄것을 희망한다.

○ 조선제도의 우월성 충분히 과시, 사회주의가 그래서 좋다는것이다.

○ 세계가 조선을 따라배워야 한다.

- 2020년 7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소식과 관련하여 중국망사용자들이 인터네트홈페지들에 올린 글

○ 조선령도자는 현명하고 결단성있다. 정말 잘한다. 탄복한다.

○ 인민에 대한 책임적인 태도이다. 당의 령도가 훌륭하다.

○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우월하다. 모두가 하나의 지휘에 따라 움직인다. 이 우세를 계속 발휘해야 한다. 위대한 조선은 그 어떤 도전도 모두 타승할수 있다. 전체 인민이 한사람같이 단결하여 끝까지 싸워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힘을 집중할수 있으므로 큰일을 할수 있다.

○ 조선의 과감성과 결단성은 따라배울만하다. 조선의 방역사업은 잘되고있다. 조선이 편안하기를 희망한다. 깨끗한 땅 끝까지 보호하라! 조선 힘내라! 반드시 이길것이다.

○ 방역분야에서 조선은 문제없다. 반응속도가 매우 빠르고 방역조치도 아주 확고하며 전문적이다. 전염병방역에서 미국보다 훨씬 낫다. 1 000배 더 강하다. 미국은 잘 보아야 한다. 트럼프가 좀 배워야 한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에 대하여 세계 여러 나라 망사용자들이 인터네트에 올린 글

○ 존엄높은 령도자와 인민의 귀감, 자주와 존엄의 나라 조선에 경의를.

○ **김정은**령도자 국가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

하여 나라와 인민의 안전과 사회주의건설의 평화적환경을 수호할 의지를 천명.

○ 나라와 인민을 존중하며 인민에게 존엄을 안겨준 령도자, 미국은 물론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령도자.

○ 조선령도자와 같은 지도자가 1개월만 령도하여준다면…

○ 존엄과 힘, 담대함, 규률성과 조직성, 정교함의 상징 조선, 비록 어려움은 있어도 혼란을 모르고 안정되여 존엄있게 사는 인민, 보다 강해지라 조선이여.

○ 남에게 빚도 지지 않고 압력도 받지 않으며 절대로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 조선, 머지않아 대국들의 전렬에 들어설것 확신.

○ 세인의 존경을 받을만한 령도자, 이것이 바로 조선의 모습이다.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기념 열병식에 대하여 세계 여러 나라 망사용자들이 인터네트에 올린 글

○ 온 세계를 놀라게 한 조선의 거대하고 훌륭한 야간열병식.

○ 미국에 맞서는 나라는 오직 핵강국인 조선뿐!

○ 오늘의 세계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자면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철하게 판단한 령도자.

리상적인 지도자

지난 10여년간 조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 모든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령도의 결과이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 정계, 사회계, 경제계, 군부의 인사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창조와 건설의 영재로 칭송하였다.

탁월한 령도예술

김정은창조방식

로씨야의 통신 크라스나야 웨스나는 《**김정은**창조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이끌어나가시는 **김정은**령도자의 창조방식은 어떤것인가.

그것은 첫째로, 세계적수준돌파이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창조하시는것은 모든것이 새롭고 혁신적이며 진취적이다. 세계적인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연풍과학자휴양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평양육아원, 평양애육원 등은 하나같이 설계로부터 시공, 내용과 형식에서 단연 최상일뿐 아니라 자기의 개성과 특색을 잘 살리고있다. 선편리성, 선미학성, 선후대관의 요구에 맞게 실용성과 예술성이 집약된 이 기념비적창조물들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지니고 계시는 문명의 높이, 창조의 높이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하지만 우에서 언급한 대상들은 기성의 형식과 도식을 깨고 부단히 새것 또 새것을 탐구하며 세계적돌파에로 지향해가는 그이의 창조세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연풍과학자휴양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그이께서는 과학연구부문과 설계부문에서 새 세기의 건축개념을 알고 재생

에네르기,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기 위한 연구 및 도입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건축만이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세계적수준을 돌파하는것이 그이의 목표인것이다.

둘째로, 비상한 창조속도이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무엇이든 최단기간내에 단숨에 끝을 맺도록 하신다.

그 실례로 마식령스키장건설을 들수 있다. 기성의 상식으로는 10년이 걸려도 어방없을 방대한 공사인 마식령스키장건설을 그이께서는 짧은 기간에 끝낼것을 결심하시였다. 마식령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그이의 호소문을 받들고 인민들과 군인건설자들이 일떠섰다. 그들은 만난을 뚫고 건설공사를 다그쳐나갔다. 방대한 부지면적의 모든 현대적인 시설들이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원칙에서 최상의 수준을 보장하면서 짧은 기간내에 일떠서 세계를 놀래웠다.

마식령스키장뿐이 아니다. 불과 5개월 남짓한 기간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개건되였고 단 4개월만에 연풍과학자휴양소, 7개월만에 위성과학자주택지구가 일떠선것을 비롯하여 조선의 면모가 문자그대로 날에날마다 몰라보게 개변되고있다.

조선에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들이 창조되고있다.

셋째로, 대단히 통이 크고 방대한것이다.

하나의 건축물을 일떠세워도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

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창조신조이다.

그이께서는 평양시의 대동강반에 일떠선 문수물놀이장의 건설형성안은 110여건, 미래과학자거리형성안은 590여건, 양덕온천문화휴양지형성안은 2 000여건, 삼지연시형성안은 무려 1만 1 360여건이나 지도하여주시였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평양육아원, 애육원,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한 살림집 등의 건설들에 투자한 설비, 자재의 액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할바에는 만점짜리로 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자, 아이들을 위하여서는, 과학자들과 교육자들을 위하여서는 아까울것이 없다,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그이의 《계산방식》이다.

그이의 사색과 실천은 일부 부문과 단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몇몇 사람들을 위한데로만 지향되지 않는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세계적수준에서 꾸려주신 그이께서는 전국의 모든 소년단야영소들과 초등 및 중등학원들도 그렇게 훌륭히 꾸리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부모없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로인들까지도 생각하시여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들과 함께 양로원들에도 매일 신선한 물고기를 정상공급하는 전용수산사업소를 내오도록 하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에 이어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돛배모양의 독특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건설하게 해주신 그이께서는 그 주변에 미래과학자거

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도록 하시였다.

문수물놀이장건설에 이어 미림승마구락부건설, 마식령스키장건설에로 련이어 펼쳐가신 그이의 창조령역은 그야말로 방대하고 끝이 없는것이다.

비상한 전개력

비상한 전개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실력에서 중핵을 이루고있다.

그이의 전개력의 특징의 하나는 대단히 폭이 크고 립체적인것이다.

2016년에 조선의 북부지역에서 벌어진 큰물피해복구과정이 그것을 잘 보여주었다.

그때 북부지역에서는 며칠동안 내린 폭우로 하여 커다란 재난을 당하게 되였으며 그 피해상은 실로 참혹한것이였다.

바로 이러한 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완공을 눈앞에 둔 려명거리건설을 미루시고 건설에 동원되였던 인민군부대들을 피해현지로 급파하는 등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 총집중하도록 중대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피해복구의 전과정을 천지개벽의 거창한 창조과정으로 전환시키시고 진두에서 지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설계와 시공, 건설력량과 자재보장문제로부터 수재민들에게 공급할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의약품 지어는 땔감, 식생활도구들, 아이들의 학습장과 수업문제에 이

르기까지 세심히 관심해주시였다. 그이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의하여 복구사업이 한창인 피해지역의 근 2 000명의 아이들이 유명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특별야영을 떠나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북부피해복구를 진두지휘하시는 그 긴박한 속에서도 인민생활향상, 경제부문의 활성화, 군부대시찰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부문 사업을 다같이 립체적으로 추진시켜나가시였다.

세계언론들은 지금까지 **김정은**령도자의 활동을 종합해보면 빈틈이 없고 두수, 세수 그보다 더 먼 수까지 내다보시면서 일을 처리해가고계시며 여러 분야를 동시에 장악해나가면서도 일의 선후차와 경중을 정확히 타산하여 추진하신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것은 그이의 사고의 폭이 대단히 넓고 어느한 부문도 소홀히 대하지 않는 빈틈없는 사업전개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인것이라고 평하였다.

선견지명

2022년 1월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규모온실농장이 일떠서게 될 함경남도 함주군 련포지구의 건설예정지를 현지에서 료해하시였다. 이어 2월 18일에는 련포온실농장건설 착공식에 참석하시여 격동적인 연설을 하시고 몸소 건설의 첫삽을 뜨시였으며 발파단추까지 누르시였다. 련포

온실농장건설을 통하여 그이의 령도방식이 먼 앞날을 내다보는 미래형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2019년말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지구에 총부지면적이 200정보에 달하는 현대적인 대규모온실농장과 양묘장이 건설되였다는것은 이미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19년 4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규모온실농장건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였지만 벌써 새로운 사업을 설계하고계시였다. 그이께서 함경남도 함주군 련포리일대에 중평온실농장보다 더 방대한 규모의 현대적인 온실농장을 일떠세울것을 결심하시고 몸소 현지를 답사하시였던것이다. 그후에도 그이께서는 련포온실농장건설과 관련한 여러 차례의 말씀을 주시며 설계사업도 몸소 지도해주시였다.

하지만 새 온실농장건설은 즉시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사실 중평온실농장은 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현대적인 온실농장으로 건설되였다. 이런 대규모의 온실농장을 편향없이 건설하고 운영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것이다.

중평온실농장이 건설된 후 조선에서는 2020년과 2021년 두해에 걸쳐 대규모온실농장의 관리운영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 이러한 실천적경험은 앞으로 매 도마다 이러한 온실농장을 하나씩 건설하려 하는 조건에서 대단히 유익한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설예정지를 현지료해하시면서 이번에 건설하려는 온실농장설계안에 이미 건설한 중평온실농장의 우단점들을 모두 참고하고 반영하여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나 경영상측면에서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온실들의 현대화수준을 철저히 높일데 대하여 이르신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

그이께서는 또한 이미전에 중평온실농장건설에 동원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한 군부대들에 새로운 온실농장건설을 맡기도록 하시고 온실농장이 완공되면 다음해부터 운영할수 있게 기술자, 종업원선발, 교육을 따라세우며 남새종자보장과 농기계, 영농물자확보를 동시에 내밀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앞날을 내다보시며 모든 사업을 세밀하게 설계하고 과학적으로 추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방식에 의하여 새로운 온실농장건설이 착공될수 있었다.

련포온실농장은 현재 조선에서 제일 크고 현대적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최대규모의 온실농장으로서 2년전에 준공한 중평온실농장에 비해 공사량이 두배이상에 달한다. 남새생산에 필요한 영양공급과 환경관리, 작업공정의 현대화측면에서도 훨씬 발전된 기술과 설비들로 장비되였다. 새로 건설된 농장살림집세대수도 1 000여세대로서 중평온실농장과 양묘장에 건설된 살림집세대수보다 훨씬 더 많다. 거기에다 학교와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을 비롯한 공공건물들도 특색있게 건설되였으며 온실농장변두리에 방풍림도 조성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처럼 방대한 련포온실농장건설을 통하여 농촌건설의 새로운 기준을 창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련포온실농장을 수만t의 생산능력을 가진 대규모남새생산기지로 건설하는 동시에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실물교육농장으로, 조선식의 농촌문명창조의 새로운 거점으로, 명실공히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건설하며 이를 기준으로, 봉화로 하여 나라의 전반적농촌발전을 더욱 강력하고 확신성있게 추진하자는 것이 당중앙의 구상이라고 밝히시였다. 한마디로 련포온실농장은 앞으로 매 도에 건설되게 될 온실농장의 기준으로 되며 실천단계에 들어가고있는 농촌진흥의 기준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속도와 방식을 비롯한 공사의 모든 요소들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창조하시였다.

련포온실농장은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불과 230여일동안에 완공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실농장건설에서 어제날의 기준과 건설방식을 또다시 대담하게 혁신해나가라고 군인건설자들을 고무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건설지휘에서도 본보기적인 모범이 창조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련포온실농장건설에서처럼 새로운 기준을 창조하고 그것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심으로써 사회주의건설전반에서 보다 큰 혁신과 전진이 이룩되게 하시려는것이 그이의 의도이고 령도방식인것이다.

번영의 봄을 앞당긴다

2022년 2월 평양의 화성지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되는 1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착공을 알리는 발파소리가 울리였다.

장쾌한 폭파장면과 함께 눈에 뜨이게 안겨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시는 주석단열에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지휘부기발이 휘날리고있는것이다. 2021년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을 선포하시면서 그이께서 건설관계자들에게 몸소 수여하신 기발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에서 밝히신바와 같이 살림집건설은 단순히 건설 그자체에만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다.

물론 이 사업은 건설부문에서 물질기술적토대를 질량적으로 강화하고 건재의 다양화와 국산화를 실현하며 건설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고 선진적인 건설공법과 건축기술을 확대도입하는것을 비롯하여 건설부문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동반하게 된다. 즉 살림집건설자체를 원만히 진행하는 동시에 건설부문을 현대적수준에 올려세우는 사업이 병행되여 앞으로 더 방대하고 무거운 공사과제를 해제낄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게 된다.

요점은 이러한 발전이 현재 대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대야금기지들과 화학공업기지들, 새로운 동력기지건설과 간석지건설 그리고 검덕지구와 련포지구, 전국의 농촌들을 변모시키는 건설들에로 이어지게 된다는것이다. 한마디로 말

하여 화성지구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그대로 건설건재공업, 기계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전력공업 등 경제의 모든 부문의 발전을 이룩하고 나라의 면모를 천지개벽시키는 원동력으로 된다는것이다.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를 비롯하여 오늘 조선이 직면하고있는 주객관적도전과 난관들은 인민들의 생활과 경제발전에 엄혹한 겨울만이 지속될것을 강요하고있다. 이 겨울을 끝장내고 약동하는 새봄을 하루빨리 앞당겨오기 위한 사업의 맨 앞장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부문을 내세워주신것이다.

그이께서는 거창한 건설이 벌어지는 과정에 동요와 무능이 극복되고 용기와 지혜가 발휘되며 락후와 침체가 타파되고 진보와 혁신이 일어나며 미래에로 나가는 국가와 인민의 힘이 더욱 강대해지게 될것이라고 확신하고계신다.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지휘부기발이 그이께서 서계시는 주석단열에서 휘날리는 리유가 여기에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21년의 1만세대건설 착공식때보다 한달이상이나 앞당겨 아직은 한겨울인 2월중순에 새로운 1만세대건설착공의 폭음을 울리도록 하시였다. 도전과 난관을 단호히 폭파해버리고 자력으로 기어이 부강번영의 새봄을 앞당겨오겠다는것을 그이께서 세계앞에 선언하신것이다.

세계를 놀래운 심야열병식

202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은 세계적판도에서 거대한 충격을 일으켰다.

환희롭고 황홀하며 경이적인 열병식, 무장집단이 출연하는 세상에 다시없는 하나의 대예술공연과도 같은 열병식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직접 지도하여주시여 완성시키신것이다.

신생조선의 장엄한 모습을 시위한 1948년 2월 8일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의 첫 열병식이 있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수십차의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그가운데서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지난 10여년간에 거행된 열병식은 10여차에 달한다. 2020년 10월 10일에 처음으로 진행된 심야열병식은 세계를 깜짝 놀래웠다.

세계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조선의 열병식이 상상을 초월하여 야밤에 진행된데 대해 전례없는 심야열병식, 특이한 새벽열병식, 상상밖의 깜짝열병식이라고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여러가지로 분석평가하였다. 그중에는 조선이 열병식을 밤에 진행한것은 난관을 기어이 극복하겠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의지와 담력, 배짱을 보여주자는것이며 조선로동당의 빛이 어둠을 뚫고나간다는 암시적인 내용을 담고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그 이후부터 진행된 심야열병식들은 규모와 형식, 내용

에 있어서 부단히 새롭고 특색있는 열병식들로 자기 모습을 바꾸어왔으며 2022년 4월 25일의 열병식으로 최절정에 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을 세상에 다시없는 열병식으로 되게 하시려고 그 준비과정에서부터 정력적인 지도를 기울이시였다.

녀성들이 붉은 오각별대형을 짓고 주석단앞까지 입장한 다음 그속에서 명예위병들이 공화국기를 들고나오는 특색있는 장면도, 항공륙전병들의 야간집체강하기교동작도 그이의 지도밑에 태여난것이다.

야간에 12명의 항공륙전병들이 **김일성**광장상공 4 500m 높이에서 초당 50m의 속도로 강하기교를 펼쳐 황홀함의 극치를 보여준것은 세계적으로 조선이 처음으로 성공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무빙조명기와 레이자투영기를 비롯한 각종 조명기재들이 아름답고 희한하면서도 력동적인 조명효과를 펼치도록 하신 그이께서는 불야경을 이룬 광장에 순간적으로 어둠의 장막을 드리우며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암전, 관중의 시선을 삽시에 끌어당기는 국부조명, 심장의 박동을 더해주는 률동파도식조명, 오색찬연한 빛을 눈부시게 뿌리는 섬광조명 등 다양한 야간조명효과를 활용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지난 시기와는 달리 전선군단종대들과 해군, 공군, 전략군, 특수작전군종대의 선두에서 대련합부대 군기와 함께 관

하부대들의 군기들도 나가는 장면 역시 처음 보는 독특한 모습이였다.

레드조명이 장착된 전투기편대들이 불꽃을 내뿜으며 난도높은 초저공비행으로 **김일성**광장상공을 날으는것을 비롯하여 어려운 기교동작을 자그마한 손색도 없이 훌륭하게 수행한것도 다른 나라의 열병식들에서는 볼수 없는 희귀한 장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병비행종대들이 주체사상탑을 지나자마자 고도를 낮추며 강하하다가 대동강대안의 상공에서부터 기수를 들면서 부채살모양으로 갈라지게 하면 아주 특색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한번 대담하게 해보아야겠다고 신심을 안겨주시였던것이다.

20대의 전투비행기와 5대의 직승기가 오각별대형을 짓고 광장상공을 날으면서 붉은 축포탄을 쏘아올리는 모습 또한 황홀하고 신비로운 장관이였다.

열병비행이 얼마나 훌륭하였으면 이 장면을 본 외국의 수많은 인터네트사용자들이 조선비행사들에게 세계선수권보유자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글을 앞을 다투어 게재하는 정도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첨단무장장비들의 위력시위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조선의 절대적힘의 진가를 세계앞에 뚜렷이 과시할수 있도록 종대는 어떻게 편성하고 장비들의 도색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열병식록화편집물의 창작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새롭고 특색있는 세계적인 걸작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로씨야통신 《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전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양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을 경축하여 거대한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광장을 중심으로 밝고 황홀한 불빛이 비치는 속에 보병종대가 행진해가고 땅크와 거대한 탄도미싸일들이 발사대와 함께 전진하였으며 밤하늘에서는 비행종대가 눈부신 축포탄을 쏘아올리며 통과하였다, 중요한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전수단들이 세계에 대고 우리는 서방의 인기있는 영화들에서 나오는 주인공들보다 더 자신만만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시위하며 공개적으로 방영한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열병식은 지난 3월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가 진행되고 그 시험소식이 조선의 TV를 통해 공개되여 사회망을 즉시에 타격했던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냈다, 활극영화음악을 깔고 영화에서 전투원들이 행동하는것처럼 편집하였다, 마치도 주인공이 비밀무기들을 마음대로 다루는 영화의 한 장면으로 쉽게 착각할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세계의 언론들이 사상초유의 열병식으로 일치하게 찬탄하여마지 않는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예지와 비범한 령도에 의하

여 세계열병식력사에 당당히 기록될 창조적인 열병식으로 되게 되였다.

건설의 대번영기

《어느 나라 도시의 건물들같은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해 조선에서는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있다. 이에 대해 세계는 어떤 눈으로 보고있는가.

브라질의 빠뜨리아 라띠나신문사 사장은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의 웨브싸이트에 조선의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찍은 수십장의 사진들을 〈어느 나라 도시의 건물들같은가?〉라는 물음과 함께 실었다. 이 물음에 수천명의 사람들이 홍콩이나 상해, 마카오의 건물이라고 대답하였다. 조선의 건물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그후 내가 얼마전 조선의 수도 평양에 일떠선 건물들이라는 해설글을 올리자 모든 가입자들이 〈상상을 초월한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황홀하다.〉고 하면서 저마다 놀라움과 경탄을 표시하였다.》

한편 로씨야신문 《로씨스까야 가제따》는 지금 수십억의 인구가 사용하고있는 인터네트에 미래과학자거리를 보

여주는 사진들이 올라 대인기를 끌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미래형의 독특한 건물들이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는 문명개화기가 더욱 활짝 꽃펴나고있는 시대에 평양에 펼쳐진 새롭고 특색있는 거리이다. 평양은 이러한 건축물들로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키고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만일 자본주의나라 사람들이 조선인민이 어떻게 살고있는가를 정확히 보고 알게 된다면 그 나라 정부는 다음날로 전복될것이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다

2012년에 창전거리가 완공된 때로부터 현대적인 거리들이 해마다 하나씩 건설되였다.

2013년에 은하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건설된데 이어 그 다음해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위성과학자주택지구가 완공되여 교원, 과학자들이 새집들이를 하였다.

불과 1년이라는 기간에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150여개의 봉사망들을 갖춘 미래과학자거리가 2015년에 완공되였다.

2017년에는 미래과학자거리에 비해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두배가 훨씬 넘는 려명거리가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웅장화려하게 건설되였다.

마식령스키장,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등 많은 건설대상

들이 기성의 관념을 깨뜨리고 빠른 속도로 건설되였다.

2021년부터는 평양시에 해마다 1만세대씩 5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고있다. 그 일환으로 2022년 4월 1만세대의 송화거리가 완공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보통강강안에 800세대의 현대적인 다락식주택구가 일떠섰다. 지금 평양시의 화성지구에서는 또다시 1만세대의 살림집을 일떠세우기 위한 건설사업이 힘있게 진척되고있다.

세계의 언론들이 조선에서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지는 현실이 펼쳐지고있다고 전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모든 건축물들이 건축미학적으로 완벽하고 특색있게 일떠서고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려명거리의 건축물들, 평양국제비행장항공역사, 연풍과학자휴양소 등은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한 건축물들로 공인되고있다.

특히 과학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대한 원자구조모양으로 건설된 과학기술전당은 독특한 양상을 가진 기념비적건축물이라고 할수 있다.

높이가 24m나 되고 무게가 40여t인 궤도에 진입하는 위성모양의 상징탑을 옥상에 세운 미래과학자거리의 53층살림집은 건축조형학적으로 완벽한 건물인것으로 하여 2016년 1월 세계초고층도시건축협회에 의해 세계초고층건물목록에 올랐다.

70층짜리 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한 고층, 다층살림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려명거리는 최신과학기술을 도입한 에네

르기절약형거리, 록색형거리로서 현대건축미를 잘 보여주고있다.

영국신문 《엑스프레스》는 《조선의 수도 평양은 결코 광고용도시가 아니다. 평양은 웅장화려한 건물들이 줄지어 늘어서고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한 도시이다. 오늘 평양의 모습은 발전과 번영, 창조를 의미하고있다.》라고 전하였다.

인민을 위한 문화휴식터들

지난 10여년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릉라인민유원지,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중앙동물원 등 수많은 창조물들이 새로 일떠서거나 현대적으로 개건되였다. 그중의 일부만을 보기로 하자.

문수물놀이장

문수물놀이장은 명칭은 소박하지만 물의 락원이라고 할 수 있다. 부지는 무려 10만 9 000㎡에 달한다. 각종 물미끄럼대와 수조들로 이루어진 야외물놀이장과 실내물놀이장, 실내체육관을 갖춘 문수물놀이장에는 사람들이 사계절 불편없이 물놀이를 즐기며 휴식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있다.

문수물놀이장에는 다기능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여있다. 물놀이시설만 놓고보아도 상상을 초월할만큼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이다. 형태도 각이하고 색갈도 다양하며 높이도

각이한 물미끄럼대는 어린이들이 리용할수 있는 단순한것도 있으며 물매가 가파로운것과 완만한것, 주로가 긴것과 짧은것, 고무배를 리용하여 내리는것과 아무러한 기재도 리용함이 없이 내리는것 등 여러가지가 있다.

물놀이수조도 수십개에 달한다. 수영수조, 파도수조, 초음파수조 등으로 다양하게 되여있어 그 어떤 형식의 물놀이도 다 할수 있다.

야외물놀이장에는 인공폭포가 있는가 하면 세계적인 명산인 묘향산과 금강산의 기암절벽들을 형상한 인공바위산도 있다. 바위산밑으로는 동굴도 나있는데 동굴안에 있는 동물조각들은 너무도 신통하여 마치 살아있는것만 같다.

문수물놀이장에는 건강과 치료효과에서 특색있는 한증방들도 있다. 여기에는 독특한 치료효과를 내는 9개의 한증방이 있다. 그중의 하나인 소금한증방은 벽면이 개당 2~3kg의 소금돌들로 채워져있는데 소금돌들은 수십종의 미량원소가 포함되여있는 수정소금돌이다. 이 한증은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효과를 내며 신경계통의 병치료와 피로회복등에 매우 효과적이다. 일정한 온도에서 먼적외선과 극초단파를 발생하는 황토를 베아링알모양으로 빚어서 구워내여 바닥과 벽면에 채운 황토한증방은 비만증치료와 염증제거에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천정과 벽면이 참나무숯으로 되여있는 참숯한증방, 송진내가 짙은 산림욕방, 마노벽돌로 벽면을 이룬 마노한증방 그리고 얼음방, 산소방도 있다.

문수물놀이장의 실내체육관에는 배구장, 롱구장, 바드민톤장 등이 꾸려져있고 탄력망과 벼랑타기시설도 있다. 운동기재실들에는 다리운동, 달리기운동, 허리운동, 한손운동, 두손운동, 아령운동, 계단오르기운동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운동에 필요한 기재들이 다 갖추어져있다.

물놀이시설들과 조화를 이루며 펼쳐진 조각들과 폭포들, 록지들과 휴식터들, 불장식조각 등은 문수물놀이장의 아름다움을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문수물놀이장에는 찾아온 사람들이 료리들과 청량음료를 들며 즐겁게 휴식할수 있도록 급양 및 편의봉사시설들도 갖추어져있다.

훌륭한 엘도라도식의 문수물놀이장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도하여주신 형성안만도 113건이나 된다.

릉라인민유원지

평양의 대동강 한복판에는 릉라도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다. 예로부터 구슬같이 맑은 물결우에 능수버들이 비단필을 풀어놓은것같다고 하여 《릉라》라고 불리워온 이곳이 오늘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유원지로 변모되였다.

릉라인민유원지의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는 물놀이장은 야외에 설비된 다기능물놀이장으로서 4개의 주로를 가진 물미끄럼대와 조약대, 물놀이수조, 덕수터, 모래불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높이 18m의 물미끄럼대정점에서 물보

라를 날리며 쏜살같이 지쳐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다.

롱구장, 배구장, 모래터배구장들에서도 사람들의 환성이 터져오른다.

물놀이장옆에 위치한 곱등어관은 건물외형부터 특색이 있다. 바다를 헤염치는 커다란 곱등어를 형상한 이곳은 사람들을 바다세계에로 이끌어간다.

그 어느 좌석에서도 편안하게 관람을 할수 있게 탁 트인 2층으로 된 천수백석의 지상관람홀과 물속세계를 눈앞에서처럼 볼수 있는 대형전광판, 시창을 통해 수중촬영도 할수 있고 공연도 관람할수 있는 지하관람홀 그리고 모래불과 바위, 해당화, 밀려오는 파도를 형상한 배경그림 등 바다환경과 꼭같이 꾸려진 조교사들의 출연무대와 공연수조, 보조수조들은 관람자들모두에게 실지로 바다에 있는듯한 느낌을 주고있다.

파도소리, 갈매기소리가 울리는 속에 흥겨운 음악선률에 맞추어 곱등어들의 련속 뛰여오르며 공중공치기, 서서뒤로가기, 누워꼬리장단치기 등의 재주들이 펼쳐진다.

《물의 요정》들로 불리우는 수중무용수들이 우아한 률동속에 《인어공주》, 《갈매기》형상들을 펼치며 곱등어들과 교감하는 장면은 참으로 매혹적이다.

동굴형식으로 꾸린 과학기술보급실은 관람자들에게 바다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주는 학교로, 보물고로 되고 있다.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면 유희장에는 황홀경의 《백야》가 펼쳐진다. 관성단차, 급강하탑, 문어회전반, 비행자전거 등 하늘땅이 엇바뀌게 하는 현대적인 유희시설들에 몸을 싣고 밤하늘을 날아오르는 사람들의 환희의 웃음소리, 기쁨의 탄성이 릉라도에 울려퍼진다.

급속도로 쏜살같이 밤하늘에 날아오르고 내려꽂히며 360° 회전하는 회전매는 릉라인민유원지 준공식에 나오시였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직접 타보시였던것으로 하여 제일 인기를 끌고있다.

그이와 함께 회전매를 타본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하루밤사이에 유명한 인물들로 되였다고 한다.

중앙동물원

대성산기슭에 일떠선 중앙동물원은 세계적수준의 문화정서생활거점, 교육거점이라고 할수 있다.

중앙동물원의 범조각상형식으로 되여있는 특색있는 본관입구는 물론 파충관과 원숭이관, 맹수사, 코끼리사, 기린사, 작은말사 등 40여개의 동물사들과 구내의 곳곳이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며 훌륭히 건설되였다.

대가리를 쳐든 거부기모양으로 형상한 겉모습도 나무랄데 없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저도모르게 감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는 파충관이 단적인 실례이다.

평면구조가 원형으로 되여있는 파충관에는 바깥쪽벽면둘레를 따라 칸칸이 련결된 동물방들을 배치하고 건물내부중

심에 반사막 및 열대초원구역을 꾸리였는데 거기에는 선인장들과 바나나 등 여러가지 식물들이 자라고있어 마치 열대지방에 온것같은감을 주게 되여있다. 동물방들과 반사막 및 열대초원구역사이에 가락지모양의 관람통로를 냈는데 관람통로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통과한 다음부터 공중다리형식의 로대를 따라 골뱅이식으로 타원자리길을 그으면서 한바퀴 돌아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오게 되여있다. 그리고 근 30종에 100여대에 달하는 설비들이 기운차게 돌면서 매 구역에 서로 다른 온습도를 보장하여주고 10만㎥의 신선한 공기를 내뿜는 공기조화기에 의해 자연의 청신한 대기를 그대로 느낄수 있게 되여있다.

하기에 훌륭히 변모된 중앙동물원의 파충관을 돌아본 스웨리예 스칸센동물관 관장은 나는 여러 나라들에 있는 많은 파충관들을 돌아보았는데 중앙동물원의 파충관은 내가 본것들중에서 최고라고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것을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지도하여주신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독특하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동물원을 훌륭히 개건한것은 **김정은**국무위원장의 령도를 받는 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며 중앙동물원의 현실은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지를 마련해주시려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는 기적이라고 말하였다.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 삼지연시

나라의 북부지역에 자리잡고있는 량강도 삼지연시의 천지개벽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인민들이 창조해가는 문명의 높이가 어떤것인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삼지연시는 평균해발높이가 1 300m되는 고산지대에 위치한 산간도시이다.

시안의 주택들은 대개가 단층살림집으로 되여있었다. 이러한 평범한 산간도시가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변모된것이다.

근 200동의 낡은 건물들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수백정보의 부지에 4 000여세대의 소층, 다층살림집들이 이채롭게 일떠섰다. 병원, 문화회관, 학생소년궁전, 체육관, 과학기술도서관, 들쭉음료공장, 장공장, 기념품공장 등 380여동에 달하는 공공 및 산업건물들이 새롭게 건설되였다.

도시구획형성과 건축에서 실용성과 다양성, 조형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였다.

북부고산지대의 자연지리적특성에 어울리게 여러 형태의 건축물들이 특색있게 건설되고 살림집과 봉사시설들이 조화롭게 련결되여 건물들사이의 예술적호상성과 호환성, 련결성이 새롭게 보장되였다. 도로시설과 구호, 표어를 비롯한 직관선전물들과 불장식 그리고 도시의 공원화, 원림화도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였다.

한마디로 삼지연시는 인민의 리상이 구현되고 현대문명

이 응축된 산간문화도시의 전형으로 전변되였다.

변모된 삼지연시를 돌아본 유럽의 한 기업가는 경제와 문화가 발전되였다는 여러 나라들을 돌아보았지만 이렇듯 훌륭한 산간도시는 보지 못하였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이런 훌륭한 건축물들이 다름아닌 평백성들을 위한 살림집들과 봉사기지들이라는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안아오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삼지연시건설의 구상을 펼치신분도 그이이시고 건설력량과 설비, 자재, 자금보장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도록 하신분도 그이이시였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개건보수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을 때 그이께서는 이왕 품을 들일바치고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건설하자고 하시며 삼지연시건설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삼지연시건설이 한창 벌어지던 나날에는 여러 차례나 건설장을 찾으시였는데 그 회수는 2018년에 3차례, 2019년에 2차례나 되였다.

2019년 12월 삼지연군 읍지구(당시) 준공식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참석하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앞으로 산간지대에 위치한 나라의 모든 지방도시들을 삼지연시처럼 훌륭히 건설하자는것이 바로 조선의 목표이다.

1만세대의 살림집, 송화거리 준공의 의미

2022년 4월 수도 평양에서는 5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첫 실체인 송화거리가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건설되여 성대히 준공되였다.

2021년 1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조선식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보고에서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할데 대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총적방향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중시하신것은 수도의 5만세대 살림집건설이였다. 2021년부터 해마다 1만세대씩 5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수도의 동쪽관문인 송신, 송화지구에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시였다. 송화거리의 건설은 결코 평온한 상황에서 결심된것이 아니였다.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 세계적인 보건위기와 같은 그 어느때보다도 혹심한 도전들은 나라의 전진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였다. 가만히 앉아 버티는것만도 기적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건설을 하는것자체가 상상밖의 일이라고 할수 있었다.

송화거리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여러해전에 일떠선 려

명거리의 몇배나 되는 작업량을 단시일내에 해제껴야 하는 방대한 공사였다. 록색건축, 건식공법과 같은 선진적인 건축기술, 건설공법들도 도입하여야 하였다. 뿐만아니라 건재공업과 금속공업, 기계공업, 철도운수부문, 채취공업 등 경제전반의 생산장성이 따라서야 하였다.

송화거리가 제기일내에 준공되여야 앞으로 5년안에 수도평양을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시키려는 조선로동당의 구상실현에서 돌파구가 열릴수 있었다.

결국 송화거리가 제기일내에 일떠서는가 마는가 하는 문제는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지향하는 조선의 전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가 마는가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도 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수도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여있고 당대회의 결정을 드팀없이 관철하기 위한 첫해의 중대한 정치적사업으로 보시고 무조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시였다. 몸소 착공식에 참석하시여 연설을 하시였고 착공의 발파단추를 누르시며 건설자들을 고무격려해주시였다. 방대한 계획안과 설계안들, 건설력량편성과 시공, 자재보장은 물론 건설자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마음쓰시며 건설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하여 송화거리는 조선식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의 새시대를 상징하는 첫 실체로 평양의 동쪽관문에 웅장화려하게 일떠서게 되였던것이다.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를 통하여 보게 되는 조선의 래일

아름다운 구슬다락이라는 뜻을 가진 경루동이라 명명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는 **김정은**시대의 조선이 어떤 창조물들을 어떻게 창조하려 하는가 하는것을 엿볼수 있게 하는 본보기라고도 할수 있다.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리면서 건물과 자연의 완전한 융합, 생활공간과 생태공간의 유기적이며 과학적인 배치가 실현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는 주택구의 표준, 본보기이다.

이미전부터 보통강강안지구에 다락식의 특색있는 주택구를 건설할 구상을 무르익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21년에 수도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는 별도로 이 건설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한달 남짓한 기간에만도 240여매의 설계도면들을 보아주시면서 호화주택으로서의 면모가 살아나도록 품들여 지도해주시였다. 건물의 배치와 형태를 보다 다양하게 하는것을 비롯하여 형성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완성시켜주시였다.

결과 소층 및 다층살림집들이 배합되여 하나의 건축군으로서의 면모가 부각되면서도 주택들의 류형별특성과 립면형성요소들이 특색있게 잘 살아나게 되였다.

살림집내부가 훌륭하게 꾸려지게 된데도 발전된 본보기들을 계속 창조하여 새라새로운 문명을 인민들에게 안겨주

시려고 마음쓰신 그이의 세심한 지도가 어려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곳에서 살게 될 주민들의 교통상편리를 위해 새로운 운행로선을 내오도록 하시고 상점들과 편의 및 급양시설들을 배치할수 있게 살림집구획을 넓히는 문제에도 관심을 돌리시였다. 주민들이 주택지구를 에돌지 않고 곧바로 내려와 교통수단을 리용할수 있게 소로길을 잘 내주며 주택구획과 주변의 원림록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보통강반의 공원들도 더 잘 꾸리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해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는 현대성과 편리성이 결합된 호화주택지구로, 새로운 주택구건설의 본보기로 일떠서게 되였다.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와 같은 현대적인 주택지구들을 가는 곳마다 일떠세우려는것은 멀지 않은 앞날에 달성하려는 조선의 목표이다.

지금 건설부문에서는 앞으로 20~30년을 기한부로 온 나라 인민들의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킬 목표를 내세우고있다. 이를 위하여 수도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에 5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있으며 각 지방들과 농촌들에서도 살림집건설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의 건설은 령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되여있는 실정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에서 확립한 기준, 이

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본보기로 하여 가까운 앞날에 수도와 지방도시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게 된다.

비록 오늘은 800세대에 달하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호화주택구의 주인들로 되였지만 앞으로는 온 나라 인민들이 다 그러한 살림집들에서 살게 하자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구상이고 결심인것이다. 그이께서 여러 차례나 건설현장을 찾으시여 비탈면, 산지들을 살림집건설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새로운 시범을 창조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신것은 바로 그때문이였다.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의 완공은 지금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요람을 아름답게 꾸려가고있는 인민들의 애국열과 창조적희열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자력자강의 경제발전전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제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인민들의 자주정신과 창조정신,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을 일관한 원칙으로 견지해나가고계신다.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은 그이의 경제전략에서 중요내용을 이룬다.

2017년 11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성뜨락또르

공장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당시)를 찾으시였다.

최악의 난관속에서도 이곳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힘으로 만들어낸 새형의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들을 보아주시고 직접 운전대를 잡으신 그이의 모습이 국제사회의 초점을 모았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장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만든 새형의 뜨락또르는 단순한 륜전기재가 아니라 적대세력들의 봉쇄의 쇠사슬을 무자비하게 끊고 경제강국의 지름길을 힘차게 열어제끼는 자력자강의 무쇠철마라고 하신 말씀내용을 주목하여 보도하였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14년부터 신년사에서 국산화를 강조해왔으며 2017년에는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다고 밝히시는 등 자강력을 경제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는 방도로 제시하시였다고 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당시)를 현지지도하시면서도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발악할수록 조선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은 더욱더 강해지고있으며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낳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2017년 첫 공개활동으로 진행하신 평양가방공장현지지

도를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대한 현지지도에서 그이께서는 경제분야에서 자력갱생, 자력자강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이에 따라 경제부문들에서는 원료, 연료,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원료와 연료를 국내자원으로 보장하는 생산기술공정들이 확립되고있다.

대규모제철소들인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국내연료에 의거하는 산소전로와 산소열법용광로가 건설된것이 대표적실례이다. 이미전에 석탄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공정을 확립한 화학공업부문에서도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며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공업과 인조섬유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져 결실이 이루어지고있다.

전기문제해결을 위해 대규모의 수력발전소들이 건설되고있으며 자연에네르기를 비롯한 다양한 에네르기원천을 적극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있다.

CNC기계를 비롯한 각종 공작기계들은 물론 현대적인 지하전동차와 무궤도전차, 궤도전차, 자동차와 뜨락또르, 각종 농기계들도 자체로 생산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경제전략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키는것이다.

오늘 조선에는 모든 생산공정이 현대화된 공장들이 수없

이 많다.

신의주화장품공장에는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통합생산체계가 높은 수준에서 구축되여있다. 무인화, 흐름선화, 무균화, 무진화가 실현되였는데 이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계설비들이 국내에서 제작되였다.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가 적극 추진되는 속에 대학, 연구소들이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지로 전변되고있으며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과 기술관리공정이 개발창조형으로 이행하고있다. 정보산업, 나노산업, 생물산업이 대대적으로 창설되여 경제발전을 추동하고있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로 지향시켜나가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경제전략의 중요내용이다.

이에 따라 경제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풀어나가고있다.

인민생활에 직접 복무하는 부문들의 발전이 중시되여 상점들에는 국내산제품들이 꽉 들어차있다.

양어장, 양식장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버섯, 온실남새생산이 확대되고있다.

2021년 1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하시면서 현 단계의 경제전략이 정비전략, 보강전략으로 된다고 천명하시였다. 정비전략, 보강전략은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사이의 유기적련계를 복구정비하고 자립적토대를 다

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영향에도 흔들림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궤도에 올려세우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22년 9월 8일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완수하고 그 성과를 다음단계에로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밀고나갈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5개년계획을 반드시 수행하여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토대를 확실하게 다지고 식량문제, 인민소비품문제를 비롯한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한 절실한 문제들을 원만히 푸는것이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총체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경제전략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조선특유의 전략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국제사회는 평하고있다.

과학기술중시와 경제발전

세계각국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현시켜나가고계시는 **김정은**령도자의 비범한 령도가 조선의 과학기술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고있다.》고 평하였다.

과학기술중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국가의 핵심전략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고있다.

그이께서는 2012년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강국이라고 언명하시였다.

이것은 새 세기 산업혁명 즉 첨단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나가실 그이의 확고한 의지의 반영이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제8차대회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과학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로선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 과학기술체계개편, 첨단기술산업창설, 지식보급확대, 과학자우대 등의 정책들을 련이어 제시하시였다.

그 실현을 위하여 그이께서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그 대상들에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 과학기술전당, 국가과학원, 평양남새과학연구소 등 과학기술의 넓은 분야들이 포괄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찾으시는 곳들마다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점령해야 할 과학기술적목표도 제시해주시고 그를 달성하기 위한 묘술과 방도들도 밝혀주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특출한 과학기술적성과들을 이룩하였을 때에는 멋있다, 대만족이다, 과학자들을 업어주고싶다고 하시며 아낌없는 사랑도 돌려주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는 온 나라에 과학기술열풍을 안아왔으며 과학기술발전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게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있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 나노기술, 우주기술, 핵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분야에 힘을 집중하고있으며 새로운 과학분야의 연구소들이 창설되고 실리와 세계적추세에 맞게 과학연구단체들의 재편성이 이루어지고있다.

과학연구와 생산이 밀착되고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첨단제품들이 계렬생산되고있다.

이와 함께 발명법을 개정하고 해마다 최우수과학자들을 선정하여 널리 소개하고있으며 다른 나라의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과학기술교류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망을 통한 원격교육이 확대되고 수재교육강화, 교육에 대한 투자 등 과학기술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있다.

현대적으로 꾸려진 평양의 과학기술전당과 각 대학, 공장, 기업소, 농장들의 과학기술보급실들을 련결하여 진행하는 전민원격교육체계가 수립되여 근로자들은 누구나 마음껏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고있다.

전국과학기술축전과 부문별과학기술전시회, 전람회, 토

론회, 보여주기사업 등이 광범히 진행되여 과학기술성과와 경험들이 제때에 보급되고 교류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그리하여 국제학술계를 놀래우는 인재들이 배출되고 우주공학, 생물공학, 나노기술 등 첨단과학기술분야들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되고있다.

특히 선진국가들이 수십년간에 걸쳐 이룩한 과학연구성과들을 불과 몇년안팎에 따라앞서는 비상한 속도와 과학기술발전방식에서 견본모방형이 아니라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한 개발창조형이 주류를 이루며 가까운 앞날에 종합적과학기술력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는것을 목표로 질주하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 추동력은 무엇인가.

2016년 5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라고 하시면서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언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열풍을 일으켜나가고계신다. 2018년 1월의 추운 날씨에도 그이께서는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였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그이께서는 억만금의 국가적투자도 아끼지 않으시며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과학연구부문들에 대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가고계신다.

그이께서는 2018년 4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2022년 9월에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가 인재전략, 과학기술발전전략을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강력히 추진해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또다시 강조하시였다.

그이의 깊은 관심과 믿음속에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 교육자들은 국가로부터 모든 과학연구조건과 생활조건을 전적으로 보장받으며 과학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하고있다. 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은 그토록 급속히 발전하고있는것이다.

세계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김정은**령도자의 과학기술우대정책으로 조선에서 창업이 활발해지고있다.》, 《조선이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고있다.》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각별히 주목하였다.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펼친 조선

2021년 12월말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소집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

를 열어나가자》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이로써 조선에서는 농촌진흥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농업근로자들의 역할을 높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일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농업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자면 생산력의 기본구성요소인 농업근로자들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야 하는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근로자들을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갈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보고에는 농업근로자들속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정책, 각이한 시대의 농민영웅, 애국농민들의 투쟁정신으로 무장시키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되여있다.

보고는 농업근로자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로 만드는것을 그들이 사회주의농촌의 주인으로서의 구실을 다하도록 하며 새시대의 농촌진흥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간주하였다. 그이께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의 견문을 넓혀주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농업과학기술학습과 선진영농기술보급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또한 농촌에 대학졸업생들을 많이 배치하고 그들의 핵심적역할에 의거하여 농장의 기술력을 더욱 증대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보고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의 문화의식수준을 높이고 농촌에 혁명적이고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을 확립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언급되였다.

그이께서는 농업근로자들이 고향과 마을을 알뜰하게 꾸려나가면서 군중문화예술활동과 대중체육활동도 활발히 벌리며 고상하고 건전한 도덕기풍을 확립하여 농촌에 웃음과 랑만, 화목한 정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강조하시였다. 국가적으로 농촌의 교육과 의료봉사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넣으며 수도의 문화, 로동계급의 문화, 시대의 본보기문화를 지방과 농촌에 끊임없이 전파, 확대하는 사업을 진행해나가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촌이 제발로 일떠서게 하고 농장들의 경제적토대를 보강해주기 위한 중요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농장들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고 상환하지 못한 자금을 모두 면제할데 대한 특혜조치를 선포하시였다.

나라의 경제사업이 아직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고 보다 중대하고 방대한 과업들이 나서고있는 때에 이러한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진것은 수백만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비상히 강화하게 되며 이것은 농업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농작물배치가 달라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앞

으로 벼농사와 밀, 보리농사에로 방향전환할데 대한 구상을 밝히시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논벼와 밭벼재배면적을 늘이며 밀, 보리파종면적을 2배이상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도 그이께서는 나라의 알곡생산구조를 바꿀데 대한 구상을 재천명하시였다.

그이의 구상에 따라 농촌들에서는 2021년 가을부터 앞그루밀, 보리파종면적을 대대적으로 늘이였다. 2022년부터는 강냉이를 심던 면적에 밭벼를 재배하기 위한 사업도 전국적범위에서 진척되였다.

지금껏 농업부문에서 기본주작물은 벼와 강냉이였다. 특히 벌방보다 중간 및 산간지대가 많은 조건에서 강냉이는 식량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작물이 벼와 밀, 보리로 바뀌고 강냉이는 사료용으로 심게 될것이다.

농작물배치에서의 변화는 인민들의 식생활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즉 인민들의 주식은 이전처럼 백미와 강냉이가 아니라 백미와 밀가루음식으로 변하게 된다.

풀과 고기를 바꾸는 축산, 집약화되는 과일 및 남새생산

집약화된 돼지공장, 닭공장 등도 많지만 조선로동당은 풀과 고기를 바꾸는 축산을 시종일관 주장해왔다. 그것은 나라에 산이 많아 풀먹는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를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여있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지난 시기 불모의 땅이던 세포지구를 대규모의 축산기지로 전변시킨것을 비롯하여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르기 위한 사업이 활기있게 진행되여왔다. 특히 2021년 6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할데 대한 결정서가 채택된 이후 풀과 고기를 바꾸는 축산은 더욱 중시되였다.

현재 전국의 농촌들에서는 염소와 소마리수를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사업이 전개되고있으며 토끼기르기도 전군중적운동으로 진행되고있다. 전국적인 젖생산량은 가까운 앞날에 2021년에 비해 3배로 늘어나게 된다.

과일과 남새생산의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되고있다. 대규모의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고산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한 과일생산기지들이 훌륭히 꾸려지고 과일생산을 지속적으로 늘이기 위한 사업이 진척되고있다.

또한 남새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실현된 중평온실농장과 련포온실농장과 같은 현대적인 대규모의 온실들을 매개 도에 하나씩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갖가지 신선한 남새를 공급하려 하고있다.

강화되는 국가적투자, 달라지게 될 농촌의 면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에서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목적지향성있게 증

대시키는것을 농업생산력의 비약적발전을 위한 중요한 방도로 제시하시였다.

농촌에 대한 국가적투자는 농업의 자립적발전을 목표로 하고있다.

계통적으로 늘어나는 국가적투자는 나라의 관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보강하고 더욱 완성하며 여러가지 비료들과 효능높은 농약들의 충분한 공급, 현대적인 전력설비와 전기기계들의 충분한 보장, 새땅찾기와 간석지개간에 돌려지고있다.

그이께서는 금성뜨락또르공장을 마력수가 높은 뜨락또르와 함께 여러가지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생산할수 있는 종합적인 공장으로 발전시키면서 주요농기계공장들과 농기계연구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여 나라의 농기계공업을 완전히 일신시키는것이 당중앙의 구상이라고 언명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특별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또한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인 황해남도에 힘을 집중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2022년 9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황해남도의 농촌들에 새로 만든 5 500대의 농기계들을 보내주시였다. 2022년 11월초에는 금성뜨락또르공장 1단계 개건현대화대상이 준공되였다.

보고에서는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들을 가까운 앞날에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만드는것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최중대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모든 시, 군들에 농촌건설에 필요한 세멘트

를 우선적으로 전진공급하며 농촌건설을 당적, 국가적으로 지휘하는 강력한 지도체계를 세울데 대한 과업, 주요자재들과 마감건재들을 국가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과업들이 제시되였다.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고있는 조선에서는 지금 농촌살림집들을 현대적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살림집을 건설하면서 지역의 우수한 문화와 지대적특성, 인민들의 편의와 요구를 보장할수 있게 하는 원칙에서 독창성을 부여하면서 주변환경과의 예술적조화성, 다양성이 적절히 결합되게 하는것이 중요시되고있다. 지방의 건설력량과 설계단위들이 강화되였으며 국가에서는 시, 군들에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보장하는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있다.

상품전람회를 통해 보다

수도 평양에서는 해마다 봄철과 가을철에 국제상품전람회가 성황리에 진행된다.

2019년 5월 조선, 중국, 로씨야, 파키스탄, 뽈스까 등 여러 나라의 450여개 회사들이 참가한 제22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서는 금속, 전자, 기계, 운수, 보건, 경공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한 조선의 제품들이 특별히 부각되였다.

로씨야 모스크바 예브로파름유한책임회사 총사장 슈쩬꼬

이고리 알렉싼드로비치는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터놓았다.

나는 이번에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토대가 상당히 튼튼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전람회에 전시된 조선의 국내회사들이 만들어낸 여러 상품들은 다른 나라 회사들이 만들어낸 상품들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 상표도 훌륭하고 상품의 질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였다.

중국 상해동금식품집단유한공사 경리 허방원은 전람회에 출품된 조선의 제품들이 훌륭하다, 외부세력의 제재속에서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 자체의 힘으로 만든것을 보면서 조선의 발전잠재력이 크다는것을 느꼈다고 하였다.

경제전문가들은 조선은 자력갱생으로 부흥하는 특이한 나라이다, 제재가 아무리 가중되여도 조선의 경제는 완강한 난관극복정신과 든든한 잠재력으로 날로 발전하고있다, 제재는 조선의 전진을 막지 못하고있으며 조선의 자립정신을 더 강하게 해줄뿐이다, 조선은 자력으로 경제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을 달성하고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이 나라가 완전히 새롭고 강력한 경제실체로 떠오를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평하였다.

사실 국제상품전람회들에 출품되는 제품들은 조선의 국력과 경제발전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축도라고 할수 있다.

여러 나라의 언론들은 평양화장품공장에서 개발생산하는 《은하수》화장품은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고있으며 제22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출품된 조선의 제품들이 가격,

품질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것으로 하여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끌고있다고 하였다.

로씨야 《코리언 캐어》유한책임회사 총사장은 인터네트 홈페지를 통하여 조선의 《은하수》화장품 다량구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은하수》제품들은 로씨야를 비롯한 유라시아경제동맹에 망라된 여러 나라의 녀성들속에서 매우 인기있는 화장품이다, 특히 조선의 명물인 개성고려인삼의 피부보호 및 작용효과가 큰 화장품들에 대한 녀성들의 애착심이 날로 커가고있다고 말하였다.

류원신발공장을 돌아본 외국인들은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질이 매우 높다고 평하였다.

조선은 기술적면에서 막강한 잠재력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을 당당히 개발생산해내고있다.

최근년간 대동강맥주공장, 대동강식료공장,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선흥식료공장, 평양가방공장 등 조선의 많은 생산부문과 단위들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국제품질인증을 받았다.

인민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한 명품들이 조선의 상점과 매대들에 쌓여 구매자들로 성황을 이루게 하고있다.

해마다 평양에서 두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국제상품전람회는 조선의 경제가 국내범위를 넘어 세계와 경쟁하며 발전해나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세계적인 제품들을 압도하는것, 이것이 조선개발자들의 목표이고 리상이다.

국제상품전람회들을 통하여 외국인들은 조선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무역, 기술교류 등 대외경제관계를 활성화하면서 부단히 세계와 호흡하며 미래에로 지향해나가고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였다.

백문이 불여일견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을 방문한 사람들의 말은 서방의 선전과 너무도 대조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그들의 문명정도와 생활방식은 서방의 선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수도 평양에만도 문수물놀이장과 릉라인민유원지를 비롯한 훌륭한 현대적인 유희장, 공원, 식당, 극장, 영화관들이 곳곳에 있으며 여기서 시민들이 높은 수준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있는것을 볼수 있다. 백화점들에는 손님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상품들이 쌓여있다. 조선사람들은 창조와 혁신에 주되는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자각이 매우 강하다.

싱가포르신문 《련합조보》홈페지에는 이런 글이 실렸다.

기자들이 평양을 방문하여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이것이 국제사회의 고도의 압력과 제재를 받고있는 평양시라고 믿기 어려울것이다,

경제는 붕괴되지도 않았을뿐더러 높은 수준의 도시발전을 이룩하고있다. 거리는 생기발랄하고 어른들과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장난하는 일상생활이 진행되고있다.

지난 몇년간 조선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장성하였고 도시건설도 가속적으로 진행되고있다. 현대적인 초고층건물들로 건설된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는 고급하면서도 당당하고 품위있는 기백과 시대적미감을 보여주고있다.

경제가 장성함에 따라 번화가들과 일용품, 의복류, 식품등을 파는 판매점, 매대들이 늘어나고있다. 평양에서도 서양식당, 술집, 차집을 찾을수 있다.

취재단은 평양시의 이딸리아삐짜식당도 방문하였다.

취재단이 식당에서 평양시민 리지향(27살, 연구사)을 취재한데 의하면 그는 나라에서 물놀이장, 공원 등 문화시설을 새로 건설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을 즐길수 있는 많은 조건을 마련해주었다고 하면서 평양의 생활이 날이 갈수록 향상되고있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는 국제적인 제재에는 개의치 않는다. 예전과 다름없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고 하였다. 미래에 대한 질문에 그는 나라의 통일과 강성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 사업의 발전과 가정생활에서의 성공도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24살의 한 대학생은 현재의 생활이 편하며 주택은 가족단위로 배정받으며 교육, 치료 등은 나라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였다. 돈때문에 조바심을 느낀적이 없으며 휴식일이면 공원에 나와 정구를 친다고 하였다. 그는 졸업하면 의사가 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싶다고 하였다.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은 《눈덮인 평양의 거리를 누

비는 천리마》라는 제목으로 자체의 기술과 노력으로 만든 새형의 현대적인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리용하는 시민들의 생활을 전하였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리용하는 새형의 대중운수수단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100%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한것으로서 속도가 빠르고 편안하며 소음과 진동이 적고 제동도 잘되며 경제적으로 매우 실리가 있다고 한다. 무궤도전차에 새겨진 《천리마》라는 의미는 날개를 펴고 빨리 나는 말이라는 뜻으로서 조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다는것을 상징한다고 한다.

로씨야신문 《로씨스까야 가제따》는 수십억의 인구가 사용하고있는 인터네트에 미래과학자거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올라 대인기를 끌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미래형의 독특한 건물들이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는 문명개화기가 더욱 활짝 꽃펴나고있는 시대에 평양에 펼쳐진 새롭고 특색있는 거리이다. 평양은 이러한 건축물들로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키고있다.

서방언론들은 조선의 훌륭한 모든것을 무시하고 조선에 대한 거짓선전을 끊임없이 고안해내고있다.

일심단결의 새로운 경지

대재난, 놀라운 사실들

2020년에 조선은 폭우를 동반한 오랜 기간의 장마와 련이어 들이닥친 3차례의 태풍으로 하여 커다란 재난을 당하게 되였다.

피해규모는 작지 않았다. 장마철기간 침수된 살림집만도 1만 6 600세대를 넘었으며 수많은 농경지와 하부구조, 공공건물들이 파괴되였다.

그런데 재난후에 일어난 사실들이 세인을 놀라게 하였다.

우선 대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재난을 당하면 불행의 감정이 표출되기마련인데 정든 집과 가산을 잃고 한지에 나앉게 된 사람들속에서는 비관이나 절망같은것을 찾아볼수 없었다. 그들은 조선로동당과 정부가 자기들을 돌봐줄것이라는 확신, 그로부터 우러나오는 희망과 락관에 넘쳐있었다.

당과 정권기관의 일군들이 피해지역 인민들을 성심성의로 위해준 사실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것이였다.

그들은 피해지역 주민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복구사업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갔다. 어느한 군에서는 새 살림집들이 완공될 때까지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군급지도기관청사들을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내주고 일군들이 천막에서 사무를 보았다.

피해복구가 즉시적으로, 전격적으로 벌어지고 여기에 국가적인 잠재력이 총동원되였다는 사실도 세인을 놀래웠다.

일본의 《도꾜신붕》은 《동일본대진재가 발생한 때로부터 9년, 아직도 4만 7 000명이상이 피난생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정한 《복구 및 창생기간》이 다되여오지만 아직까지 피난처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있는 사람들은 수만명이나 되며 한심한 생활조건과 질병으로 자살자, 사망자들이 늘어나고있다고 쓴적이 있다. 발전되였다고 하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실태는 보편적이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졌다.

당과 정부는 군대를 비롯한 강력한 건설력량들을 피해지역으로 급파하였다. 수도당원사단으로 명명된 1만 2 000명의 새로운 건설력량을 조직하고 진행중에 있던 중요대상건설장들의 건설력량들도 피해복구현장으로 돌리였다. 온 나라가 떨쳐나 복구에 필요한 물자들의 생산과 수송을 최우선 보장하였다.

복구건설속도 또한 놀라운것이였다.

어느한 인민군부대 건설자들은 3층짜리 소층살림집골조공사를 단 3일동안에 해제끼였다. 결국 짧은 기간에 피해복구가 전부 완료되고 인민들이 생활용품들까지 그쯘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살림집으로 춤을 추며 이사하는 이채로운 광경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게 되였다.

이 피해복구사업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러 차례나 피해지역들에 나가시여 피해상황을 직접 료해하시였고 필요한 대책을 다 취해주시였다. 피해지역현지에서 몸소 공개서한을 보내시여 인민들을 피해복구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중요회의들에서 피해복구와 관련한 조치들을 취해주시고 복구건설장들을 련이어 찾으시며 건설자들을 고무해주시였다.

2020년 9월 피해복구를 남먼저 끝낸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이 좋아한다니 정말 기쁘다고, 새집들이하는 모습들을 하루빨리 보고싶다고 하시며 이곳 주민들이 새 마을과 살림집에 정을 붙이고 부디 행복하게 잘살며 이 고장에 언제나 복이 깃들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하나의 대가정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가 되고 전체 인민이 한가정이 되여 화목하게 사는 현실을 창조하였다.

조선에서는 사람들사이에 서로 돕고 이끌며 남을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는 미덕과 미풍이 국풍으로 되고있다.

부모없는 자식들을 데려다 키우는 처녀들과 어머니들, 뜻밖에 불상사를 당한 이웃들과 동지들에게 피를 바치고 살을 바치는 사람들, 자식없는 늙은이들을 친부모처럼 모시며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는 젊은이들, 물에 빠진 아이

들을 건져내거나 불붙는 남의 집에 뛰여들어 사람들과 가장집물을 구원하기 위해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는 사람들…

이러한 미덕은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현상들이다. 언제인가 여러날동안 붕락된 막장안에 갇혔던 탄부들은 몸을 움직일수 있는 마지막순간까지 발파구멍을 뚫었다.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생명이 다할 때까지 석탄을 더 생산하려는 소행이였다.

그들은 동지들이 자기들을 꼭 구원해주리라고 믿었다. 따라서 구원해줄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는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간주했던것이다.

이것만을 가지고 인민들이 사회주의사회를 《하나의 대가정》이라고 부르는것은 결코 아니다.

발이 닳도록 인민을 위해 뛰고 또 뛰라.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라.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다. 그이의 덕망과 자애로운 풍모는 세상천하가 얼어붙는 겨울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언제나 따뜻한 봄을 느끼게 한다. 그이께서는 인민들과 군인들을 만나 사진을 찍으실 때면 어깨를 겯고 팔을 끼신다. 어린이들을 보시면 품에 꼭 껴안고 놓지를 못하신다. 외진 섬들인 장재도와 무도에 갔다오실 때 허리치는 바다물속에 뛰여들어 바래워드리는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에게 오래동안 손을 저어주시던

그이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여있었다. 정으로 맺어지고 정이 흘러넘치는 대가정의 아름다운 화폭이였다.

이러한 뜨거운 정은 《로동신문》에 자주 실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인민들간에 오고가는 편지내용을 보면 더 잘 알수 있다.

동부에 위치한 함경남도 영광군 장흥리에 림경심이라는 귀화한 일본인녀성이 있다. 그의 친부모는 일본사람들이다. 아버지가 경심이와 그의 어머니를 버린 후 그들모녀는 먹고 살아가기 위하여 일본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였다. 후날 그는 조선사람인 이붓아버지를 따라 조선땅으로 오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에서는 그들모녀가 일본인이지만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따뜻이 대해주었다. 무상으로 아담한 문화주택을 배정해주었고 안정된 직업을 주었으며 먹고 입고사는 온갖 생활조건을 보장해주었다. 림경심은 조선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꽃피울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정은 당의 배려에 응당한 보답을 하지 못하였다. 림경심의 맏아들은 나라앞에 죄를 지은것으로 하여 법적처벌을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림경심은 그만 락심하여 주저앉고말았다. 그러나 친어머니도 도리질하고 밀어놓은 그의 맏아들을 조선로동당은 버리지 않았다.

병든 자식, 결함있는 자식에게 더 왼심을 쓰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꾸준히 교양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당시)의 초급일군으로 내세워주었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

립 60돐 경축행사 대표로까지 참가시켜주었다.

뿐만아니라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원산농업대학을 졸업하도록 해주었고 작업반장으로 키워주었다.

림경심의 맏아들은 한때 나라앞에 죄를 지었던 자기를 믿어주고 공부시켜 내세워준 당의 은정에 보답하기 위하여 있는 힘껏 일하였다. 마침내 그는 조선로동당원으로까지 되였다.

림경심은 당의 은정이 너무도 고마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편지를 올렸다.

그의 편지를 받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가슴속에 아픈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더 깊이 품어주고 내세우고있다, 자식의 아픔을 놓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며 어루만지고 살점도 피도 서슴지 않고 주는것이 어머니이다, 자식이 잘되는것을 보며 기뻐하고 그것을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한생의 락으로 여기는것이 이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을 어머니라고 하는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고 의지해주는 마음에 감사드린다는 친필회답편지를 보내주시였다.

나라일에 누구보다 시간이 바쁘신 그이이시지만 유치원아이들로부터 로인들에 이르기까지 기쁜 일, 괴로운 일 모두 적어올린 편지들을 일일이 보아주시고 사랑과 믿음의 친필을 보내주신다. 령도자와 인민들이 이처럼 사랑과 믿음의 뉴대를 잇고사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2022년 5월 악성비루스가 경내에 침습하였을 때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

한 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였을뿐만아니라 몸소 가정에서 마련하신 상비약품들을 황해남도의 어렵고 힘든 세대들에 보내주시였다.

무료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뿐 아니라 장학금까지 주며 대학공부를 시키는 나라, 무상으로 수술은 물론 필요한 각종 약까지 공급하며 치료해주는 나라, 새집을 국가부담으로 돈 한푼 안받고 주는 나라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인민들은 자기들을 하늘처럼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그 하늘의 태양이시라고 칭송하고있다. 하늘과 태양으로 조화되는 이 숭고한 관계를 인민들은 《혼연일체》 또는 《하나의 대가정》이라고 부르고있는것이다.

조선의 객관적현실

주해를 달아야만 했던 CNN

조선에서 인민들이 높은 문화수준과 창조력을 지니게 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고있는것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다.

2012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아직은 경제형편이 어렵지만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안하신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지난 기간 실시되여온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심화발전이며 중등일반교육체계의 새로운 높은 단계라고 할수 있다.

1년동안의 학교전교육과 5년제 소학교, 3년제 초급중학교, 3년제 고급중학교에 이르는 12년제의무교육제도는 세계적으로 앞선 수준의 교육제도이다.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에서는 어린이들에게 학교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초를 닦아주며 소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의 성장발육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자연과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주어 중등교육을 원만히 받을수 있게 하고 있다.

초급중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중등일반기초지식을 배워주며 고급중학교에서는 중등일반지식을 완성시키면서 현실에 써먹을수 있는 기초기술지식을 배워주고있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이 과학교육의 해로 제정되여 교육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개변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기술대학들이 대대적으로 증설되였으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원격교육체계가 완비되여 오래전부터 운영되여온 전사회적인 교육망이 보다 강화되고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일생동안 배우며 자기의 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다.

무상치료제 역시 세계적으로 앞선 수준이라고 할수 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 돈 한푼 내지 않고 병을 치료받고 있으며 지어 정휴양비와 료양비, 오가는 려비까지 국가로부터 보장받고있다. 전반적무상치료제는 오늘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강화되여감에 따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옥류아동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류경치과병원 등이 련이어 일떠서 의료봉사를 진행하고있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는 유선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봉사 및 과학연구기지로서 다목적렌트겐을 비롯한 현대적인 의료설비들과 권위있는 의료진을 갖추고있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의사들이 유선종양연구분야에서의 세계적발전추세와 성과들에 대하여 학술연구토론회, 협의회를 할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있으며 먼거리의료봉사체계에 따라 전국의 모든 녀성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 유선질병들의 조기적발 및 예방치료조치와 대책들을 취할수 있게 되여있다.

제약공장들과 의료기구공장들, 각지의 보건산소공장들을 비롯하여 보건사업의 발전을 안받침하는 공장들이 새로 일떠서거나 개건현대화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의료봉사체계를 더욱 확대강화하는 사업으로부터 약품생산과 의료기구 및 설비생산, 의료일군양성과 의사재교육사업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보건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신다. 그이의 관심속에

사람중심의 보건제도는 계속 확대발전되고있다.

새로 일떠서거나 개건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은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그가 이전에 조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졌든 경탄을 금할수 없게 하고있다.

사실 서방은 지금껏 조선사람들이 굶주리고 헐벗으며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다고 오도된 선전을 해왔다. 서방의 선전만을 들어온 사람들은 실지 조선에 와보고는 너무나도 판이한 현실에 놀라고있다.

세계의 눈과 귀라고 하는 미국의 CNN방송은 개선청년공원의 현란한 불장식속에서 흥취나게 돌아가는 유희시설들에 몸을 싣고 즐거운 탄성을 올리며 휴식을 즐기는 평양시민들의 모습을 현지에서 보도하면서 이렇게 덧붙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당신들의 눈이 잘못된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회주의 조선입니다. …》

《글로벌 리써치》 특파원의 평양방문기

유엔주재 《글로벌 리써치》 특파원인 미국시민 칼라 스테아의 평양방문기의 일부를 아래에 전한다.

…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가는 고려항공려객기안에서 나는 옆자리에 앉은 조선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조선사람들은 다 성미가 까다롭고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서방의 선전

과는 달리 아주 상냥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였다.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선사람들이야말로 흥미진진하고 매력있는 사람들이라는데 대해 느끼게 되였다.

나는 옥류아동병원을 참관하였다.

국가가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옥류아동병원은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모든것이 아주 편리하게 설계되여있어 건물전체가 치료사업에 이바지하고있었다.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어린이들이 여기서 전문교육을 받은 의사들과 간호원들의 보살핌과 첨단의료설비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있었다.

류사한 병원들이 전국에 세워져있고 의사들은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통해 평양에 있는 이 중앙병원의 의사들과 협의를 할수 있다.

옥류아동병원에는 직승기착륙장이 갖추어져있었다. 모든 의료봉사는 무료로 제공되고있었으며 전국의 어린이들이 이러한 의료시설들을 리용할수 있었다.

나는 세계 어느곳에서도 어린이들과 심지어 그들의 부모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건강에 대해 이렇듯 관심해주는 높은 수준의 아동병원을 보지 못했다.

나는 이전에 조선녀성들에 대한 자료를 본적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내가 병원에서 목격한 녀성들은 우아하고 고상한 옷차림을 하고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사람들은 굶주리고 령락된 생활로 하여 어두칙칙하고 단조로운 색갈의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깥세계의 관념을 완전히 깨뜨려버렸다.

방문일정이 계속될수록 나는 조선에서 유엔의 2030년 지속적개발목표들중의 하나인 남녀평등권에 관한 문제에서 이미 놀라운 전진이 이룩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다음으로 나는 가장 현대적인 안과의료설비들과 최상의 치료봉사를 제공하고있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을 돌아보았다.

나는 여기서 내가 리용하는 접촉렌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뉴욕에 있는 최고의 안과의사의 검사결과와 일치하였다.

나는 이것을 통해 병원설비들의 수준을 직접 확인할수 있었다. 병원은 각이한 년령의 환자들로 붐비고있었고 모든 치료봉사 역시 무료로 제공되고있었다.

안내원의 말에 의하면 의사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비는 국가가 보장해주기때문에 의사들이 치료활동에 전심전력할수 있다고 하였다.

나는 평양제1중학교를 참관하였으며 나의 요청으로 생물학과 화학, 물리학강의실들을 돌아보았다.

나는 물리학강의를 받고있던 학생들과 함께 미래의 조선의 물리학자가 되려는 그들의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선에서의 학교교육은 무료이며 의무화되여있다.

나는 과학기술전당도 참관하였다.

이 전당은 우주과학으로부터 시작하여 깨끗한 에네르기기술에 이르기까지 조선에서 이룩된 눈부신 과학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관이다.

나는 여기서 시력장애자들을 포함한 각이한 장애자들을 위한 과학기구들과 아이들을 과학의 세계에로 안내해주는 요술방들, 생물공학, 해양 및 우주기술, 과학기술공식들과 농업의 추세 등을 보여주는 수많은 전람실들을 돌아보았다. 나는 임의의 장소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국시민이라고 밝히면서 자유롭게 말을 걸었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민족과 언어의 장벽, 편견들은 사라지고 인간들사이에 오가는 친밀성이 그 인위적인 장애물들을 대신하였다.

이 변혁적인 나날들을 보내며 나는 과거에 대해서와 지금까지 주입받아온 모든 내용들을 깨끗이 잊게 되였으며 조선의 풍부하고 인도주의적인 문화에 동화되였다.

나는 미래과학자거리를 참관하였다.

이 거리는 과학자들과 그 가족들이 살고있는 주민구역이며 여기서 주민들은 의료설비들을 비롯한 모든 시설들을 완전히 무료로 리용하고있었다.

과학자들은 가족을 먹여살릴 걱정없이 과학연구사업에 집중하고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조선의 급속한 과학기술발전의 또 하나의 비결이였다.

그날 교외에 있는 숙소로 돌아오고있던 길에 나는 농촌마을을 지나며 잊을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였다.

6~7살 나보이는 어린 소녀애가 춤을 추고있었다. 아마도 농장일나갔던 부모들을 기다리며 그들에게 보여줄 춤동작을

련습하고있던 모양이다. 그때 차를 멈추고 아롱다롱한 치마를 입고 즐거움에 넘쳐 황금빛이 물든 저녁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춤을 추고있던 그 귀여운 소녀애를 촬영기에 담지 못한것이 아쉽다. …

미국인들의 체험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적대관계에 있으며 두 나라는 1950년대의 조선전쟁이래 현재까지 사실상의 교전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조선을 어떻게 보고있을가. 물론 대부분이 부정적인식을 가지고있을것이다.

하지만 조선을 직접 제 눈으로 살펴본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러저러한 리유로 조선에 체류하였던 두 미국인의 체험담이 그것을 말해준다.

미국 텍사스주 엘 파소에서 나서자란 미국시민 아르투로 피에르 마르티네즈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체류하는 기간에 조선인민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열렬한 애국자들인가 하는것을 직접 느낄수 있었다.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 미국은 험담들을 늘어놓고있다. 이것은 황당무계한 거짓말이다. 조선인민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조선에 대한 〈인권〉모략소동은 반사회주의선전

이며 사회주의와의 전쟁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나는 평양에 있는 기간 아주 훌륭한 곳들을 참관하였다. 나는 체류를 통해서 조선과 같은 훌륭한 사회주의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을 하고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사회주의길로 나가고있는 가장 훌륭한 나라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사람들이 행복하며 그리고 애국적이며 령도자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있다. 이것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우면서도 희한한 목격이였다.》

《조선이 매우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나라이고 인민들이 아주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으며 공업이 얼마나 급속히 발전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였다. 조선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인민들을 위한 제품들과 자동차, 기관차 등 모든것을 생산하고있다. 경제적인 난관을 겪고있다면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봉쇄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봉쇄속에서도 조선이 이러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는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방문을 통해 정말 훌륭한 감동을 받았다.》

미국인인 뉴욕대학 학생 주원문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평양시를 비롯하여 여러곳을 돌아보는 과정에 제일 훌륭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모두 일반시민들을 위한것으로서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있는 사실을 알

게 되였다. 인민대학습당만 보아도 전민이 학습하는 규모가 대단히 큰 도서관으로서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무상으로 리용하며 그들은 거기서 각종 도서들을 읽고 외국어, 음악 등 여러 과목들을 배우고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학업에 열중하고있다. 현대적인 전자도서관에는 인터네트나 국부망을 사용할수 있는 콤퓨터들이 있으며 이밖에도 교원들과 학생들이 피로를 풀수 있는 훌륭한 수영관도 있다.

평양학생소년궁전도 돌아보면서 재능을 가진 어린이라면 누구든지 국가의 관심속에 마음껏 희망을 꽃피울수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학교들과 박물관들을 비롯하여 내가 돌아본 건축물들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것이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시려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 **김정은**국무위원장의 발기와 지도에 의해 건설되였다는것이다.

후대들에 대한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자애로운 사랑은 최신식의료설비들을 갖춘 옥류아동병원에서도 찾아볼수 있었다.》

그는 지방주권기관의 대의원들을 선거하는 모습도 보게 되였다고 하면서 선거장들은 후보자들이 서로 경쟁을 벌리는 마당이 아니라 인민들이 후보자들을 지지하고 후보자들은 사회를 위하여 복무할것을 약속하는 장소였다고 말하였다.

사회주의사회인 조선에서 체험한 모든것은 자기의 일생

에서 가장 놀랍고 따뜻한 추억으로 남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명백한것은 서방이 떠드는것처럼 공화국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인권문제》나 《폭압정치》를 전혀 찾아볼수 없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신천박물관에서 지난 조선전쟁을 공화국이 아니라 미국이 일으켰다는것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증거물들과 전쟁기간 미군이 감행한 만행자료들을 보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학살된 어린이들의 묘에 꽃다발을 놓으면서 나는 고등학교에서 받은 수업들이나 다른 기회들에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서는 왜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하여 조선인민이 품고있는 적대감에 대해 리해할수 있었다. 미국이 아직까지도 자기의 죄과를 인정하지 않고있는것으로 하여 조미관계가 더 악화되고있으며 이것은 평화의 장애물로 되고있다.》

그는 끝으로 이렇게 강조하였다.

《나의 체험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 특히 미국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바란다. 미국이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고 정책을 전환할것을 요구한다.》

한 프랑스인의 조선방문인상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중보도수단들은 지구의 동쪽 조선은 불빛도 전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리며

현대문명과 동떨어진 락후하고 페쇄적이며 호전적인 나라라고 선전하고있다.

하지만 조선에 직접 가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프랑스인 마르세이유 까르띠의 조선방문인상기를 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여러 지역을 3일동안 방문할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차례졌다. 조선방문은 평양방문길에 함께 오른 서방동료들과 나의 머리속에 들어찼던 온갖 생각을 뒤집어엎고 나의 생활관을 변화시킨 놀라운 체험으로 되였다.

나를 놀라게 한것처럼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을 경탄시킬수 있는 조선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들을 아래에 서술하겠다.

평양은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이다.

아마 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일것이다. 조선전쟁(여기서는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른다.)시기 도시 전체가 미국의 주단식폭격을 받아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여기에 성성한 건물이라고는 두채밖에 없었다는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경이적인 성과라고 말할수 있다.

넓은 록지들과 마찬가지로 조각상들과 거대한 공공건물도 인상깊었다. 그러한 록지들에서는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을 볼수 있었다.

온 도시에 새로 건설되는 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있었으며 지은지 오래된 집들도 잘 유지관리되고있었다.

듣기에는 평양의 밤이 어둡다고 하는데 평양에는 서방처

럼 밤마다 번쩍거리는 전혀 쓸데없는 광고판들이 없으며 도시의 많은 곳이 조명장식으로 하여 아름다왔다.

조선사람들은 자주 웃고 미소를 지으며 롱담을 한다. 독자들은 필경 나에게 《그것은 순수 보여주기 위한것이 아닌가?》라고 물어볼것이다.

만일 내가 만나본 모든 조선사람들의 그렇듯 진실한 웃음이 지어낸것이라면 이것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길거리의 사람들도 자기의 곁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그 많은 승용차들속에 외국인이 탄 승용차를 알아보고 《기쁜 표정을 연출해내는》 수를 쓰는것으로 된다.

서방의 선전과는 달리 조선에서도 사람들의 교제방식은 《개방적》인 서방에서와 마찬가지이며 사람들의 성격은 천태만상이다.

사람들의 취미는 각양각색이며 자기의 마음에 드는것을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다.

사람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잘 입고다닌다. 나는 옷을 깨끗하지 못하게 입고다니거나 해진 옷을 입고다니는 사람들을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 서방통신들의 선전으로 굳어진 우리의 생각처럼 남성들과 녀성들이 모두 꼭같은 옷을 입은것이 아니였다. 장미색의 세련된 옷차림이나 전통적인 조선치마저고리 등 매우 밝은 색갈의 옷을 입은 녀성들을 자주 볼수 있다. 남성들은 흔히 넥타이를 매고다니거나 샤쯔를 입고 정장을 하고다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일상적인 옷을 입고다니는것도 흔치 않게 볼수 있다.

서방에서 떠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거짓이다. 불순한 의도를 추구하는 인터네트싸이트들의 정보를 인용한 서방출판물들의 보도는 완전한 허튼소리이다. 그것은 이 나라를 《악마》로 둔갑시키려는 술책이다.

공원과 유원지들에서 진행되군 하는 가족들놀이가 인상이 깊다. 가족들놀이가 고조에 오르면 남녀로소가 덩실덩실 민족춤을 춘다. 다른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춤판에 끼여들지 않으면 안된다. 춤판에 뛰여든 사람들은 외국인들의 손을 잡아끌며 춤동작들을 배워주느라고 애쓴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조선사람들이 내가 지금껏 만나본적 없는 가장 열정적이고 진실하며 활동적인 사람들이라는것을 알았다. 조선인민이 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를 이겨내고 조선전쟁에서 인구의 4분의 1을 잃었고 지금은 전쟁접경의 정세속에서도 자기의 사회제도를 계속 유지하는것을 보면 그들이 대단히 장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교육을 비롯한 무료의무교육에서의 성과, 방랑자가 없는 사회, 긍지높고 당당한 인민, 이 나라에 대한 보다 완벽하고 전면적인 표상을 가지려면 바로 이것을 상상해보아야 할것이다. 우리는 조선이 안고있는 난문제들을 다른 문제들과 결부시켜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것은 한때 억압받던 민족이 일극세계수립도상에서 다른 국가들을 집어삼키려는 렬강들의 노예적지배에서 해방되

는것을 목표로 삼고있다는것이다.

나는 핵무기에 대해 말한다는것을 잊어버릴번 하였다.

가령 미국서부의 절반땅을 차지한 조선군이 뉴욕의 해안가에서 년례적인 군사연습을 진행하면서 맨하탄에 대한 주단식폭격과 미국의 전령토점령훈련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서방은 어떻게 하였을것인가.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이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키우는것이 리상적일것이다.

조선사람들은 《호전광들》이 아니며 그 무슨 군부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더욱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의 조종밑에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나고있는 험악한 사태들을 보면서 자기 나라가 독립국가로 존재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선군정치와 핵억제력이라는 진리를 절대적인것으로 절감하였을것이다.

조선은 서방의 선전과는 다른 나라

쓰르비아의 국회의원인 미로슬라브 라잔스끼는 신문 《뽈리띠까》에 조선방문기를 게재하였다.

그는 201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평양에서 진행된 열병식에 대한 자기의 소감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미국이 가로막고있다. 미국은 현 조선반도위기를 산생시킨 장본인이며 조선의 핵보유는 위기를

조성하고 그것을 리용해온 미국의 낡은 술책의 산물이다.

조선은 미국이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청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론리적으로 보아도 자기 코앞에 핵무기가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하는것이 옳은 선택으로 될것이다.

조선은 그 누구도 먼저 위협하지 않으며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좋게 발전시켜나갈것이지만 미국의 핵위협이 종식되지 않는한 민족의 자주권과 안전을 담보하는 핵무력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이라는 립장을 견지하고있다.

한편 쓰르비아언론들은 《조선에 대한 서방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 《조선은 서방의 선전과 다른 나라》라는 제목으로 미로슬라브 라잔스끼와의 회견내용을 상세히 전하였다.

그에 의하면 라잔스끼는 이렇게 피력하였다.

나는 불과 며칠전까지만 하여도 서방언론들의 체계적인 거짓말에 홀려 조선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있었다. 허나 이번 방문의 첫발자국부터 상반되는 현실을 목격하게 되였고 서방의 거짓선전을 폭로하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내 눈으로 본 조선사람들은 옷차림이 단정하고 세련되였으며 상점들에서는 다양하고 고급한 공업품과 식료품들이 대량판매되고있었다.

평양은 유럽의 현대적인 도시들과 다를바 없는 훌륭한 도시였다. 흠잡을데 없는 지하철도가 정상운영되고있었다.

그는 조선인민이 수십년간 지속되는 적대세력들의 갖은

제재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해서와 조선이 막강한 과학기술력과 경제적잠재력을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인도네시아 쟈야 쑤쁘라나음악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요란스러운 악선전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핵국가》, 《인권유린국》, 《빈궁의 나라》 등 온갖 부정적인 언론의 영향으로 망설임과 긴장감까지 가득찬 속에서 조선방문이 이루어졌다, 우리를 진정으로 감동시킨것은 주택, 교육, 보건분야에서 모든 공민들이 무상으로 혜택을 누리는것이였다, 조선의 현실은 이 나라를 지구상의 가장 《범죄적인 국가》로 묘사하는 미국의 실태와 비교해볼 때 조선이 보다 정의롭고 문명한 나라임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고 말했다.

에스빠냐의 플라멘꼬음악단 단장은 조선방문과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것은 조선에 대한 선입견에 정면충돌하는 경험이였다고 자기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COVID-19》방역에서 수범을 창조

세계적인 전염병위기속에 조선은 어떻게 청결한 땅으로 남아있는가?

조선에서 창조되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은 비단 대규모건설을 비롯한 경제부문에만 한한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세계를 혼란과 파동에로 몰아넣고있는 《COVID-19》방역에서도 기적을 창조하였다.

2019년말 신형코로나비루스가 처음 발생하였을 때 그이께서 그 위험성을 간파하시고 선제적이고 전면적인 봉쇄조치를 취하도록 하신 결과 2년 3개월이라는 최장의 무비루스감염지대라는 기록을 세울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악성비루스의 경내류입으로 나라에 엄중한 상황이 조성되게 되자 즉시 최대비상방역체계에로 이행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2020년 3월 11일 중국 사회관계봉사망 《전략집결호》는 《세계적인 전염병위기속에 조선은 어떻게 청결한 땅으로 남아있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형코로나비루스가 전세계를 공격하고 많은 나라들이 그 포위속에 빠져들고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세계적으로 11만여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등 3대발병국가와 지역의 포위속에 보기 드문 청결한 땅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조선이다.

부처님처럼 대처하는 일본과 허세를 부리는 미국에 비해 조선은 절대적으로 강력한 방역조치를 리행하였다. 무한봉쇄초기부터 이미 조선은 이 병이 전세계적인 재난으로 번질것으로 전망하고 특별히 관심을 돌리였다.

조선은 아직 전세계가 이 병에 대해 관심을 돌리지 않는 1월말부터 놀라운 선견지명으로 긴급조치를 취하였으며 국가긴급방역체계를 수립하였다. 이 체계에 따라 조선은 중앙

과 도, 시, 군들에 방역지휘부를 설립하고 전국의 통과지점, 항만, 비행장들에서 검역을 진행하여 신형코로나비루스의 류입을 철저히 차단하였다.

외국출장자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의진자들에 대한 조기치료를 진행하고 사전에 격리시설까지 준비하였다. 더욱 믿기 어려운것은 이 모든 조치들이 조선에서 감염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속에 미리 이루어진 조치라는것이다.

서방보도매체들이 조선의 이러한 조치들이 지나치다느니, 경제적손실이라느니, 인권침해라느니 하고 떠드는 사이에 신형코로나비루스는 짧은 시일내에 60여개 나라로 전파되였으며 서방의 렬강들도 피할수 없는 함정으로 련이어 추락하였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조선의 방역조치는 그야말로 《신의 조치》였다고 평가할수 있다.

각 나라 정부들이 서로 헐뜯고있을 때 조선은 이미 통일적인 지도에 따라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에 의한 전염병발생을 방지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 국내 외국인들에 대한 격리 실시, 수입품들에 대한 검사검역강화, 집체활동의 금지, 학생들의 겨울방학기일연장 등 조치들이 리행되였으며 인원류동시 위생방역규률과 공공위생규률관련지침을 제시하고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였다.

조선의 선견지명하고 우수한 방역조치들은 결코 국제적으로 이름이나 날리자는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런데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직 전민적인 방역사업을 잘하자는것이 유일한 목적이다.

2월 12일 조선은 중국의 악성비루스전파상황을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30일간의 격리기일 연장조치를 발표하였다. 조선의 이러한 중시와 용기에 탄복을 금할수 없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걷잡을수 없이 빠른 속도로 만연되는 전염병이 일단 조선에 들어오면 그 후과는 매우 엄중하다고 하시면서 국가적인 방역체계내에서 그 어떤 《특수》도 절대로 불허하고 각 부문, 각 단위들이 방역지휘부사업에 무조건 복종하는 엄격한 규률을 확립하도록 하시였다. 조선의 방역사업은 물샐틈없이 자신심있게 진행되였으며 조선의 의료위생수단이 어떠하든간에 온 사회가 한마음이 되여 전염병을 차단해낸 능력은 절대 과소평가할수 없는것이다.

일부 보도매체들은 조선이 장기적인 국제사회의 제재와 봉쇄로 인해 대외교류가 적고 인원류동이 많지 않으므로 대규모감염을 피할수 있는것이 아주 자연스러운것이라고 평가하고있다.

필자는 뛰여난 판단력과 우수한 방역조치를 리행하는 조선을 색안경을 끼고 보려는 일부 사람들의 견해가 잘못되였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악의적으로 헐뜯는 목적은 그들이 우습게 여기던 조선이 세계적인 전염병확산이라는 시험에서 《선진국》, 《발전국》들에게 오히려 한수 가르쳐주었기때문이다.

조선에 한명의 감염자도 없으며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있다는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며 이를 위

해 조선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였는지는 그들밖에 모를것이다.

…

한편 국제언론계와 대조선전문가들속에서는 조선의 방역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평이 울려나왔다.

조선령도자께서는 국가비상방역체계안에서 그 어떤 특수도 허용하지 말며 전염병이 들어올수 있는 모든 통로를 완전봉쇄할데 대하여 지시하시는 등 전례없는 강력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조선지도부의 이러한 선택은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조선의 정치체제에서만 가능한것이다.

전민이 합심하여 전파경로를 차단하는 능력을 결코 얕보아서는 안된다. 중국, 일본 등의 3대발병지역에 둘러싸여있지만 방역에 성공한 조선의 고유하면서도 특이한 경험에 대해 국제사회는 커다란 관심을 집중하고있다.

평온과 안정을 빨리 회복한 조선

2022년 5월 악성비루스가 침습되였다는것이 확인되여 조선에서는 전국적범위에서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되였다. 하지만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비상방역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점차 온 나라에 평온과 안정이 도래하였다. 어떻게 되여 평온과 안정이 그처럼 빨리 찾아들게 되였는가.

주되는 요인은 조선로동당이 방역전쟁을 직접 주도한데

있다고 볼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를 소집하시고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결정서를 채택하도록 하신것은 5월 12일이였다.

이후 그이께서는 전염병전파상황을 신속히 억제, 관리하며 방역사업에서 전략적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기 위한 대책들을 련이어 세워주시였다. 5월 14일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다음날인 15일에 또다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소집하신 그이께서는 5월 17일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회의를, 5월 21일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5월 29일에도 전염병전파상황을 토의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이로써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18일동안에만도 방역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그이께서 지도하신 중요회의들은 무려 6차례나 되였다. 이것은 조선로동당의 력사에서 처음 보는 일로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의 생명안전을 위하여 얼마나 신속하고 적시적인 대책들을 세우시였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직접 위험도가 높은 방역현장들을 찾아 방역실태를 료해하고 대책들을 세워주신것, 가정에서 몸소 마련하신 상비약품들을 어렵고 힘든 세대들에 보내주도록 하신것도 세계방역사에 보기 드문 사례이다.

그이께서는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찾으시여 전국적인 비상방역상황을 직접 료해하시고 방역전에서 승세를 주동적으로 확고히 틀어쥐기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결정사항들을 시급히, 철저히 실행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5월 15일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마치시는 길로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직접 돌아보시였다. 당시 약국의 판매원들은 병을 앓고난 직후였다. 그이께서는 판매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여 약품공급 및 보관정형과 약국을 24시간봉사체계로 전환하였는가, 주민들이 지금 제일 많이 찾는 약은 어떤 약들이며 가격은 얼마인가 하는것들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료해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주민들이 열이 나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설하겠는가를 자신께 설명해보라고 이르기도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의약품공급체계의 허점을 바로잡고 의약품수송과 관련한 강력한 실행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조선의 안정적인 방역승세는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와 그에 보조를 맞춘 전체 인민의 자각적일치성, 덕과 정에 있다.

인민들은 전국적인 봉쇄조치가 실시된 이후 소독과 격페 등 정부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책임적으로 실행하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의 특별명령에 의하여 평양시의 수백개 약국들에 전개된 근 3 000명의 인민군대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의약품의 수송과 공급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약국에서 손님들을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다. 집집을 찾아다

니며 필요한 약들도 공급해주고 환자치료에 적극 참가하면서 주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실례로 5월 24일 하루동안에만도 평양시와 전국각지에 90여종에 수천만점의 의약품이 공급되였으며 6월초에 이르러서는 그 수가 연 430여종에 3억 6 000여만점에 달하였다.

전국적으로 근 500개의 신속기동방역조, 신속진단치료조들이 조직되여 방역사업과 감염자확진, 후송, 치료사업을 전개하였다. 백수십만명의 의료일군과 양성기관 교직원, 학생, 위생열성일군 등이 환자치료와 검병검진 및 소독사업에 동원되였다.

서로 돕고 이끄는 덕과 정은 이번 방역전쟁의 주요특징이라고 할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유약품과 자금, 식량을 어렵고 힘든 세대들에 지원해주었다. 나어린 학생들도 자기 손으로 직접 약봉투를 만들어 약국들에 보내주었다.

수천명의 보건부문사업경력을 가진 년로보장자들, 다른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의료봉사사업에 자원적으로 참가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주민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전국적으로 근 1만개의 이동봉사대가 조직되였으며 평양시에만도 매 구역마다 160여개의 남새, 식료품, 생활필수품매대들이 새로 전개되였다.

조선의 방역대승,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2022년 8월 10일 최대비상방역체계가 해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진행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연설하시면서 령내에 류입되였던 신형코로나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하시였다.

수자로 본 세계기록

지난 5월 12일 악성비루스의 류입으로 유열자가 급증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은 전국의 시, 군을 단위로 지역별봉쇄를 실시하고 생산단위, 사업단위, 생활단위별로 격페조치를 취하는 최대비상방역체계에 진입하였다. 이 강도높은 방역조치는 불과 91일만에 해제되였다. 2년 3개월이라는 세계최장의 코로나무감염지대라는 기록을 세웠던 조선이 악성비루스의 전파를 억제하고 완전히 퇴치하는데서도 세계적인 기록을 세운것이다.

사실 국가에서는 최대비상방역체계가 해제되기 썩 이전부터 악성비루스전파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지 5일째부터 전국적인 전염병확산세를 억제, 관리가능한 안정국면에로 돌려세우고 비상방역전의 승세를 틀어쥐였다. 초기 수십만명에 달하였던 하루유열자수는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지 불과 한달후에는 9만명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였다. 7월 29일부

터는 경내에서 유열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시말해서 단 80여일만에 악성비루스의 전파사태를 해소하고 방역안정을 되찾을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이것 역시 악성비루스의 전파를 억제하는데서 세계적인 기록을 세운것으로 된다.

당시까지 왁찐접종을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놓고볼 때 사망자가 74명으로서 전체 유열자의 0. 001 6%밖에 안된다는것도 놀라운 현실이 아닐수 없다.

최대비상방역기간 유열자들을 찾아내여 완쾌시키는 사업에 매일 7만 1 200여명의 보건일군, 114만 8 000여명의 위생열성일군들이 동원되고 수천명의 보건부문일군경력자들이 자원봉사에 참가하였다.

대조되는 현상들

돌이켜보면 세계적으로 신형코로나비루스가 확산되기 시작하였을 때 사람들속에서는 각이한 반응이 일어났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의 돈많은 부자들은 대양 한가운데 있는 섬들에로 경쟁적으로 피난하였을뿐 아니라 거기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인터네트에 올려 사람들의 비난을 자아냈다. 상품을 무데기로 사들이다못해 사회적혼란이 일어날것을 예견하여 무기를 구입하는 사람들도 속출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 무슨 《자유》를 운운하면서 마스크착용을 거부하였고 방역학적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규정에 위반되는 모임들이 지구의 곳곳에서 거리낌없이 진행되였다.

자기 개인만을 생각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형언할수 없는 고통과 희생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사회주의조선에서는 전체 인민이 당과 정부의 조치에 호응하여 방역규정과 규범들을 자각적으로 준수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착용과 손씻기, 손소독, 방역학적거리두기 등을 의무화하였고 방역사업에서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미풍이 발휘되였다.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되였을 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직접 국가비상방역사령부와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찾으시며 비상방역사업을 지휘하시였고 몸소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본부당위원회에 바친다고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세대들에 보내달라고 제의하시였다. 그이의 수범을 따라 당중앙위원회의 일군들은 물론 각급 당조직들과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 일군들도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분투하였으며 자금과 생활필수품, 식량 등을 각지의 어렵고 힘든 세대들에 보내주었다.

평범한 사람들속에서도 아껴두었던 자금과 물품, 식량 등을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생활상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무수히 꽃펴났다.

비루스청결지대

8월 12일부터 전연과 국경지역을 제외한 나라의 각지에서는 주민들이 일제히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밝게 웃으며 거리와 마을로 나섰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첫째로, 조선이 실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비루스청결지대라는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에서는 비루스전파상황이 조금만 완화되여도 방역등급을 낮추군 하였다. 하지만 조선은 남의 식을 따르지 않았다.

유열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지만 절대로 긴장성을 늦추지 않았다. 유열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10일이상이나 방역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성이 200%, 500%로 담보된 후에야 최대비상방역체계를 해제하였으며 련이어 마스크착용까지도 해소하였다. 이것은 경내에 단 한명의 악성비루스감염자도 없다는것을 공개한것으로 된다.

둘째로, 조선이 앞으로 그 어떤 보건위기에도 자신있게 대응할수 있다는것이다.

사실 조선에서는 악성비루스가 류입되지 않았을 때에도 모든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도록 하였다.

악성비루스전파상황을 겪으면서 전민항전, 전민합세라는 조선식사회주의의 고유한 우월성으로 방역대승을 안아왔으며 그 과정에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현재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정연한 방역체계가 세워지고있다. 그 어떤 악성비루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역장벽을 더욱 든든히 쌓고있다. 설사 위기상황이 조성된다고 해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수 있는 자신심이 있다는것, 이것이 바로 마스크를 벗어버린 비루스청결지대-조선의 당

당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다.

세계가 조선의 비상방역전을 두고 《세기적인 수수께끼》, 《전설같은 현실》이라고 찬탄하여마지 않았다.

조선의 비상방역전은 세계로 하여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떤분이신가 하는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하였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다

동방에는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것이고 100년의 계획은 사람을 키우는것이라는 좋은 속담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을 이끌어오신 지난 기간은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10여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2012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는 세계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발포되였던것이다.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가의 령도자로 공식추대되신 그해에 발표된 법령들중의 하나였다. 그이께서 왜 교육사업을 다른 사업에 앞세우시였는가.

이미 수십년동안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해온 조선

의 교육수준은 비교적 높은 단계에 있었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미래를 보다 확신성있는것으로 만들자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간주하시였다. 이로부터 그이께서는 교육년한을 1년 더 늘여 12년으로 할데 대한 구상을 천명하시였던것이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도 각이한 나라들의 교육기간과 경제장성률의 호상관계를 분석하고 교육기간을 1년만 늘여도 경제장성률이 9%이상 높아진다는 견해를 발표한적이 있다. 하지만 교육년한을 늘인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교육년한을 늘이는데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것으로 하여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있다.

12년제의무교육제도가 확립되는데 맞게 조선에서는 새로운 교육제도에 부합되는 교육강령이 작성되였으며 교육내용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이 진척되였다. 이와 함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도 주목이 돌려졌다.

2018년 1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3D화상입력장치와 3D인쇄기, 전자칠판을 비롯한 첨단교육설비들과 현대적인 교구비품, 관리운영설비들을 갖춘 대학은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본보기대학이였다.

그이께서는 평양교원대학을 돌아보시면서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는데서 교원대학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

시였다. 그러시면서 각 도들에서 이곳을 본보기로 하여 교원대학들을 잘 꾸릴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그에 따라 전국의 많은 교원대학들이 교육자양성의 원종장으로 훌륭히 꾸려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통교육부문의 학교들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변모시키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창전소학교, 평양초등학원과 중등학원을 비롯한 보통교육단위들을 돌아보시면서 학교들을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리도록 지도하시였다. 이와 함께 교원들의 실력을 높여 학생들을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능력있는 인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각지의 학생소년궁전들과 소년단야영소들도 현대적으로 개건하여 학생소년들이 리론과 실천을 겸비한 인재들로 자라나도록 모든 조건을 마련해주시였다.

교육년한이 늘어나고 교육환경과 조건이 좋아진다고 하여도 거기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정신세계가 이질화되면 그 나라의 미래는 담보될수 없을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소년단원들의 대회합인 소년단대회들에 몸소 참석하시여 뜻깊은 연설도 하시였고 그들과 기념사진도 찍으시며 온 하루를 그들을 위해 바치기도 하시였다.

그이께서 하신 연설들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소년단원들이 선렬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혁명의 피줄기를 굿굿이 이어나가야 한다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소년단원들이 행복만을 누리는 귀동자, 귀동녀가 아니라 선렬들이 이룩한 나라의 모든 재부를 귀중히 여기고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제 손으로 가꾸어가는 나어린 애국자가 되여야 한다고 당부하군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단히 중시하시는 공장들이 있다. 그것은 교과서와 학습장, 가방, 연필을 비롯한 학용품들을 생산하는 공장들이다. 학생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애국심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 그이께서는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들여 현대적인 학용품공장들을 일떠세워주시였다.

그이께서 얼마나 교육사업을 중시하시는가 하는것은 지난 10여년간 국가적규모의 교육부문의 대회가 두차례나 소집되고 조선로동당의 중요회의들에서 여러 차례나 교육발전문제가 론의된것만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로 보는 조선의 미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근로자로,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킨다는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인재양성에 힘을 넣고있으나 그것이 광범한 근로대중의 범위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있다. 모든 사람들을 현대과학기술로 무장시키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있다.

하지만 조선에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여있다.

우선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다. 높은 수준의 중등의무교육의 실시는 사회의 전반적지식수준, 문화수준을 높이며 전체 인민을 과학기술인재로 준비시키는데서 필수적인 전제로 된다.

또한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수립되여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정규적인 고등교육기관들의 원격교육망과 각지의 공장대학과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으로 구성되여있다.

지금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원격교육을 하고있으며 원격대학의 지망자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있다.

뿐만아니라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사회교육시설들이 그쯘히 구비되여있다. 공장, 기업소들에는 과학기술보급실들이 있고 각 도의 시, 군들에 과학기술보급거점인 미래원들이 있다.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이 갖추어진 여기에서 누구나 최신과학기술을 마음껏 배울수 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것은 평양의 대동강한복판에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이다. 전당의 기초과학기술관, 응용과학기술관, 지진체험실, 가상과학실험실 등 부문별실내과학기술전시장들에는 조작형, 느낌형, 가동형의 전시물들이 전시되여있고 손접촉식콤퓨터와 투영기 등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재들이 갖추어져있으며

과학기술보급실과 열람장소들도 배합되여 꾸려져있다. 사람들을 과학적발명과 착상의 세계에로 불러주는 미래의 에네르기구역, 과학유희구역도 꾸려져있다. 과학기술전당은 종합적인 전자도서관으로서의 사명도 수행하고있어 사람들은 누구나 여기에서 지난 시기에 출판된 과학기술도서들은 물론 조선에서 이룩된 최신과학기술성과자료들과 각국의 선진과학기술자료들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열람할수 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의 가장 큰 담보는 조선로동당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철한 과학기술중시정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기술중시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이를 위하여 인재를 중시하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시였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민학습의 대전당이며 다기능화된 과학기술보급의 중심기지인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보급망을 형성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이 중앙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물이 흐르듯이 보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들에서 과학기술전당과 망으로 련결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며 그들이 해당 단위의 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 얼마나 큰 관심을 돌리시는가 하는것은 과학기술전당에 깃든 그이의

사적만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과학기술전당건설을 발기하신분이 바로 그이이시다. 그이께서는 2014년 6월 풍치수려한 대동강 한복판의 명당자리인 쑥섬에 몸소 그 터전을 잡아주시고 이름없던 쑥섬을 과학의 섬으로 개발한다는것을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부문을 돌보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과학기술전당형성안을 몸소 보아주시고 건설정형을 수시로 료해하시면서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였다.

2015년 2월에는 찬바람 불어치는 한겨울의 추위도 무릅쓰시고 건설현장을 찾으시여 건설자들을 격려하여주시였다. 그이의 깊은 관심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과학기술전당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세계적인 건축물로 완벽하게 일떠설수 있었다.

2016년 새해 첫날에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신 그이께서는 과학기술전당운영을 잘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에 크게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과정에 그 어느 공장, 기업소를 찾으시든 과학기술보급실을 꼭꼭 돌아보시며 그 운영을 잘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과학기술인재로 준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군 하신다.

전면적발전, 전면적부흥에로

2022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의 정책적과업들을 밝힌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연설에서 그이께서는 조선을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 전면적부흥의 길로 줄기차게 이끌어가시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천명하시면서 그 실행을 위한 과업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그 과업들을 살펴보면 모든것이 다 혁신과 발전으로 일관되여있음을 알수 있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서 가시적인 성과에 머무를것이 아니라 50년, 100년앞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보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지론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의 제일가는 무기인 일심단결의 위력을 사상의지적으로나 도덕의리적으로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하며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국가사업전반에 참답게 구현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사에 적극 참가하도록 주권활동을 심화시키고 온 사회에 집단주의기풍과 공산주의미덕, 미풍이 계속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

다고 하시였다. 이것만 놓고보아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건설에서 부단한 혁신과 발전을 지향하고계신다는것을 알수 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완수와 관련한 부문별과업도 마찬가지이다.

5개년계획은 그자체가 나라의 경제사업실태와 현실적가능성에 토대하여 지속적인 경제상승과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향상에로 나가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시정연설에서 그이께서는 내각의 사업발전과 농촌진흥, 경공업과 수산업, 기간공업의 발전, 살림집건설, 국토관리와 재해방지사업, 교육과 과학기술, 보건사업의 중시 등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당면과업들과 전망목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앞에서도 언급되였지만 5개년계획이 완수되면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사이의 련계, 자립적토대가 정비보강되여 나라의 경제전반이 장성궤도에 올라서게 될것이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푸는데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것이다. 5개년계획이 완수되는 2025년말에 가서는 2020년수준보다 국내총생산액은 1.4배이상, 인민소비품생산은 1.3배이상 장성하게 된다. 수도에만도 5만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되게 되며 검덕지구가 산악협곡도시로 새롭게 태여나게 된다. 2022년부터 시작된 농촌건설이 본격적으로 진척되여 전국의 농촌들이 사회주의리상촌으로서의 면모가 완연히 드러나게 된다. 서해안의 간석지들이 드넓은 옥토로 변모되

게 되며 온 나라 포전들의 관개시설들이 훌륭히 완성되게 될것이다.

뿐만아니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수력발전소건설과 나라의 동서해를 련결하는 대운하건설에 대한 구상도 펼치시였다. 이 모든것은 곧 조선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신성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것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세계는 사회주의강국에로 향한 우리 인민의 선택이 어떻게 지켜지는가, 조선이 자기의 결심을 어떻게 실천해나가는가, 이 땅에서 또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겠는가를 괄목할것이라고 언명하시였다.

미래사회의 원형

많은 외국인들이 조선을 찾았다. 짐 데이터도 그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조선방문인상에 대하여 리념의 미래는 주체사상에 있으며 미래사회의 원형은 조선에 있다, 나는 바로 이러한 리념이 귀중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조선의 사회건설방향에 매혹되여 조선을 방문하였다, 조선을 방문하면서 나는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주체식사회주의에 있다는것을 확인할수 있었다고 피력하였다.

집 데이터는 미국사람이다. 그는 오래동안 미래학을 연구하면서 인류가 지향해야 할 미래사회에 대하여 탐구했다. 그러나 그는 물질지상주의의 저속한 영향으로 타락한 서방의 사회상에서 환멸밖에 얻은것이 없었다.

그는 조선을 방문하고나서야 자기가 연구하는 미래학을 다시 추켜세울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그가 조선에 대한 방문을 결심하게 된것은 세계미래학련맹 총서기로서 위기에 처한 세계미래학을 추켜세우기 위한 방도를 찾기 위해서였다. 미래학을 연구하는 동료학자들은 그에게 조선을 방문하여 주체사상을 연구하면 미래학을 발전시킬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인으로서 주저되는바가 없지 않았지만 조선에 대한 방문을 결심했다.

조선을 방문한 그는 여러 학자들도 만나보고 여러곳을 참관하는 과정에 조선인민들의 행복한 모습과 조선의 사회현실을 목격하면서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였다.

조선에서 보고 듣는 모든것이 그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1950년대 전쟁에 의한 조선의 비참상과 파괴상에 대하여서만 알고있던 그로서는 조선이 그처럼 참혹한 페허우에서 리상사회를 건설한것이 놀라운 일이였다.

그는 주체사상의 진리성에 대하여 매혹되게 되였으며 주체사상의 덕을 조선인민만이 아니라 인류가 보고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앞에서 한 강연에서 주체사상과 미래학건설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 나는 주체사상의 덕분으로 미래학건설의 근본 지침으로 될 라침판을 얻게 되였다고 하였다.

조선의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한 조선의 사회주의야말로 자기가 그처럼 고심하는 미래학을 발전시킬수 있는 고귀한 재부라는것이 조선방문기간 그가 도달한 결론이였다. 조선의 모든 곳에 근로자들의 성실한 노력이 깃들어있었고 그 어디서나 창조로 들끓고있었다. 조선사람들은 서로 돕고 이끌며 하나의 대가정속에 살고있었다.

이것은 주체사상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였다.

짐 데이터는 귀국후 세계미래학련맹 전임일군들과 동료학자들에게 주체사상은 미래를 밝히는 위대한 사상이므로 응당 미래학은 이 사상이 요구하는 방향에서 모든 문제를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세계의 미래에 대하여 절망하고있는 사람들에게 조선을 모르고서는 미래사회를 론하지 말라, 락심하지 말고 조선을 동경하며 힘을 얻으라고 하였다.

명망높은 정치가

조선반도와 그를 둘러싼 지역의 정세 그리고 조선과 대국들사이의 관계에서 지난 시기에는 상상할수도 없었던 사변들이 일어난것을 보면서 세계가 끓어번졌다.

이 경이적인 사변들을 안아오신분은 어느분이신가. 적대국의 대통령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현시대의 가장 세련된 국제지도자라고 찬양한 희세의 위인은 어느분이신가. …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담대한 결단

랭전이 종식되였을 때 인류는 더이상 전쟁이 없는 세계에서 살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처럼 념원하는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다. 특히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로 전쟁의 먹구름이 시시각각으로 밀려들었다.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은 결코 한정된 지역의 사람들만 걱정할 문제가 아니였다.

그것은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이 기필코 핵전쟁으로, 전지구적인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되며 그 결과는 상상할수 없이 파국적인것이기때문이였다.

군사평론가들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전세계적으로 20조US$의 경제손실과 500여개 대도시의 파괴, 10억이상의 희생, 전지구의 사막화라는 무서운 4대피해를 가져올것이라고 보았었다.

제2차 세계대전후 파괴된 유럽이 원점으로 가는데 30～50년이 필요했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나 세계대열핵전쟁이 폭발한다면 세계가 100년 아니면 200년간의 원시상태를 겪고서야 회복궤도를 탈것이라고 추산하였다.

이처럼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대치상태와 긴장격화는 세

계의 종말까지도 가져올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배태하고있는것이다.

더우기 2017년은 조선과 적대세력들사이의 대결이 극도로 첨예화된 해였다. 적대세력들은 이해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여 조선을 반대하는 제재결의를 무려 4차례나 조작해냈다. 방대한 핵전쟁무력을 조선반도에 끌어들이였다. 이를 단호히 배격하는 조선의 조치도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전문가들은 2018년에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충돌이 일어날수 있는 확률을 40~50%로 보았으며 일부에서는 전쟁발발가능성이 그이상으로 된다고 평하기도 하였다.

숨가쁜 긴장과 극도의 우려속에 2018년이 밝아오고있었다. 이러한 때에 신년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상이 온 세계에 비쳐졌다.

세계는 놀랐다.

우선 엄동설한에 밝은 회색의 양복을 입고 연단에 나오신 그이의 모습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후날 세계여론들은 그이의 옷차림이 엄혹한 정세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에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였다고 평하였다.

그이의 신년사의 내용은 더욱 놀라운것이였다.

그이께서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세상사람들이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대용단을 내리시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던것이다.

그이의 신년사는 온 세계에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광범한 국제사회가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열렬히 환영해나섰다.

조선과의 대결에서 정치적리익을 추구하던 적대세력들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평화애호적결단을 지지해나설수밖에 없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시기 위하여 미국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할 결단도 내리시였다.

조선과 미국은 장구한 세월 서로 적대시하면서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 대치해왔다. 미국은 조선반도주변지역에서 끊임없이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조선을 압살해보려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국방력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오도록 령도하시여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추게 하시였다. 결과 조선은 그 어떤 적대세력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나라로 되였다. 만일 조선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가 누구든지 돌이킬수 없는 참혹한 후과를 각오해야 하였다.

이렇게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는 보장될수 있었으나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와 긴장상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있었다. 이로부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드팀없는 평화애호의지를 안으시고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로 결심하시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핵시험중지,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중지를 선언하시고 세계각국의 전문가들과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지하핵시험장을 페기하도록 하시는 결단을 내리시였다. 그이의 확고부동한 평화애호의지는 세계의 광범한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켰으며 미국은 회담을 거부할 그 어떤 리유와 구실도 내댈수 없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으로 찾아온 미국무장관을 접견하시고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조선반도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추동하고 훌륭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훌륭한 첫걸음을 떼는 력사적인 만남으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한것으로 하여 조선에 억류되여있는 미국인들을 석방하여줄데 대한 미국대통령의 공식제기를 넓은 도량으로 수락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명령으로 특사를 실시하여 송환하도록 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미수뇌회담의 전망에 일시적인 난관이 조성되였을 때에도 력사적인 조미수뇌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시여 회담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주시였다.

조선반도에 펼쳐지는 새로운 정세변화에 대해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운전대를 쥐고있다고 평하였다.

세련된 외교술의 극치

지구상에서 가장 장구한 세월 첨예하게 대립되고 지속되여온 조미사이의 극단적인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두 나라 인민의 리익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결단과 의지에 의하여 금세기최초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게 되였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의 쎈토사섬에서 조미 두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였다.

싱가포르의 쎈토사섬의 이름은 《평화와 고요》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싱가포르의 쎈토사개발공사는 섬에서 진행되는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며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섬의 서쪽끝에 자리잡고있는 씰로쏘요새를 특색있게 장식하였다.

씰로쏘요새는 1800년대후반기 싱가포르를 강점하였던 영국군대가 쎈토사섬을 드나드는 선박들을 감시하기 위해 건설한 곳으로서 당시의 유적들이 그대로 보존되여 현재 군사박물관 겸 관광지로 리용되고있다. 공사에서는 요새에 놓여있는 60문의 대포들의 포문마다 꽃다발을 꽂아놓고 그 주변을 평화를 상징하는 감람나무가지들로 장식하였다. 이처럼 평화에 대한 인류의 갈망은 뜨거웠다.

이날 9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도날드 제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봉하시고 첫 악수를 나누시였다. 대립과 반목의 력사가 흘러온 70여년만에 처음으로 조미수뇌분들이 화해를 향한 첫발을 내디디고 대화의 장에 마주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서 오늘 여기까지 와닿는 과정이 결코 헐치는 않았다고 하시면서 과거의 력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짓밟고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왔으며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였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이어 진행된 확대회담에서는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이며 심도있는 론의가 진행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이번 수뇌회담이 조미관계개선에로 이어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올해초부터 취하신 주동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조치에 의하여 불과 몇개월전까지만 하여도 군사적충돌의 위험이 극도에 달하였던 조선반도와 지역에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가 도래하게 되였다고 평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넓으신 도량으로 트럼프대통령이 제기한 미군유골발굴 및 송환문제를 즉석에서 수락하시고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트럼프대통령은 당면해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에 따라 조미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조미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준수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시였다.

력사적인 조미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성명에서는 조선과 미국이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선과 미국이 공동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조선과 미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것을 확약하였다.

가장 적대적인 두 나라 수뇌분들의 첫 회담이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여 빛나는 성공을 거두게 되자 세계여론은 삽시에 경탄과 찬사의 열기로 들끓었다.

세계언론들은 한결같이 《초현실적이며 력사적인 사건》, 《상전벽해》, 《경천동지할 사건》, 《력사책과 세계사교과서에 담겨질 회담》이라고 평하였다.

트럼프, 세계를 놀래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뵙고 트럼프가 한 발언과 행동들이 세계를 놀래웠다.

트럼프는 싱가포르 쎈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력사적인 첫 악수를 나누면서 평소의 《완력악수》대신 《상냥하고 친절한 악수》를 하여 세계를 놀래웠다.

세계여론들은 이 12초동안의 악수를 70여년간의 랭전의 벽을 허문 《짧지만 거대한 악수》, 1972년 모택동과 닉슨의 《베이징악수》와 1986년 고르바쵸브와 레간의 《레이캬비크악수》를 뛰여넘는 《세기의 악수》로 력사에 새겨졌다고 하였다.

트럼프는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매우 좋다. 매우 영광스럽다. 우리는 훌륭한 관계발전을 이룰것》이라고 말하여 세계를 다시 놀래웠다.

미국의 CNN방송은 《트럼프대통령이 어느 정상을 만나서도 영광스럽다는 표현을 쓴적이 없었다.》고 전하면서 놀라운 모습이라고 평하였다.

또한 트럼프는 공동성명서명식이후 **김정은**국무위원장은 위대한 인격을 갖춘 뛰여나고 훌륭한 협상가, 굉장히 많은 재능을 가지고있으며 자기 조국을 매우 사랑하는분이시라는 등의 《폭풍칭찬》을 쏟아냈다.

트럼프는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끝난 이후 외신들과 진행한 기자회견과 미국 ABC방송, VOA방송, 폭스뉴스와의 여러차례의 인터뷰, 6차례의 트위터글 게재, 괌도 앤더슨공군기지에서의 기자회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은**국무위원장은 아주 좋은 성격을 가지고계신다. 훌륭한 협상가이시고 매우 전략적인 인물이시다. 그 나이에 벌써 그 정도로 할수

있는 사람은 세계정치지도자들 10만명중 한명도 없다.》, 《**김정은**국무위원장을 매우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았다면 공동성명에 서명하지 않았을것이다.》, 《밝은 미래를 향하여 첫번째 과감한 조치를 취해준 **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 감사를 전하고싶다. 매우 고맙다. 나는 조만간에 평양에 갈것이며 굉장히 기대하고있다. **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 백악관초청의사를 전했고 그도 수락하였다. 어떤 형식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김정은**국무위원장을 백악관에서 만나고싶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노력하여 많은 일을 할수 있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장거리를 날아가 **김정은**국무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하였다.

그는 백악관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함께 찍은 영상사진문헌을 4상이나 모시였다.

트럼프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하여 자기의 트위터에 그이를 영웅으로 칭송한 글을 올렸다.

하노이수뇌회담

세계를 진감시켰던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이 있은지 8개월이 지난 2019년 2월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하노이에서 트럼프대통령과 두번째로 상봉하시였다.

이 의미심장한 자리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신과 오해, 적대적인 눈초리들과 낡은 관행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다 깨버리고 극복

하며 다시 마주 걸어 260일만에 하노이까지 왔으며 이 시간은 그 어느때보다 많은 고민과 노력, 인내가 필요했던 기간이였다고 하시였다.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령도자를 다시 만나게 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기쁘다고 하면서 우리는 매우 훌륭한 관계를 맺고있다고 하였다.

돌이켜보면 그 전해의 력사적인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조미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6. 12조미공동성명채택후 조미관계의 조속한 개선과 진전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트럼프대통령과의 친서교환, 특사 및 고위급대표단의 파견 등 조치들을 취하시였다. 그에 따라 조미관계진전을 위한 진지한 협상탁들이 마련되였다.

국제사회는 조선의 평화애호적이고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있는 조치를 취하며 그에 맞게 실천행동으로 화답해나선다면 두 나라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것이라고 관망하고있었다.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와 트럼프대통령은 싱가포르공동성명에서 제시한 공동의 목표들을 실행해나가기 위하여 현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청취하고 그 방도를 진지하게 론의하시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각계인사들은 하노이수뇌회담을 지켜보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자주적대와 배짱에 탄복을 금치 못해하였다.

로씨야정부기관지 《로씨스까야 가제따》신문사 총사장은 **김정은**령도자의 특출한 외교술은 세계적초점을 집중시키고있다고 하였으며 책임주필은 **김정은**령도자와의 상봉을 위하여 코대높은 트럼프가 하노이까지 날아간것자체가 조선의 승리이다라고 하였다.

수리아 디마스끄도청 총서기는 제2차 조미수뇌회담과정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리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해나가는 **김정은**령도자의 정치외교실력에 경탄한다고 하였다.

세계는 평화를 위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려정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안아오게 되기를 고대하고있었다.

세계의 관심을 모은 판문점조미수뇌상봉

2019년 6월 30일 오후 세계의 이목이 조선의 판문점에 집중되였다. 도날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조미수뇌상봉이 이곳에서 전격적으로 진행되였던것이다.

수뇌상봉과 회담에서는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량국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였으며 조선반도비핵화와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

해나갈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판문점에서의 전격적인 조미수뇌상봉에 세계가 놀랐다.

그해 2월에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의 미국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하여 회담이후 조미관계개선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해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일방적인 미국식대화법에는 흥미가 없으며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찾기 전에는 다시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는 립장을 명백히 하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분렬과 조미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극적인 조미수뇌상봉이 마련되였으니 세계가 놀란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판문점상봉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야말로 인간적으로 진실하고 의리가 있는분이시라는 평가를 내리게 하였다.

그이께서는 4월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하여 신랄히 지적하시면서도 자신과 트럼프대통령과의 개인적관계는 두 나라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있다고 언급하시였다. 트럼프대통령이 미국력사상 조선과 수뇌회담을 한 첫 대통령이라는것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와의 친분관계를 중히 여기시는 아량을 보여주시였던것이다.

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 이미 두차례의 만남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하여 매우 믿음이 가고 진실한분이시라는것을 느꼈고 그러한 인간적매력에 끌려 친서교환을 진행하여왔으며 이번에 사전준비없이 판문점에서의 상봉도 요청했던것이다.

국제사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세계적인 정치가로서 매우 대범하고 도량이 넓은분이시라는것을 잘 알게 되였다.

판문점상봉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비범한 견인력과 능란한 외교술을 다시한번 실감케 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상봉시 트럼프대통령이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북측지역을 밟아보게 하시였다.

판문점분리선앞에서 트럼프대통령에게 전세계가 지켜본다고,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는 첫 미국대통령으로 되라고 하시며 미국대통령을 판문점 북측지역으로 안내하시였다.

그이께서 트럼프대통령과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손을 맞잡고 판문각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시는 모습은 실로 충격적이였다.

세계의 언론계가 끓어번졌다.

서방의 언론들은 **김정은**령도자께서 판문점상봉을 전격적으로 실현시켜 력사적인 사변을 창조하였다, 전통적으로 핵을 보유한 국가수반들사이의 회담은 수개월의 준비기간이 없이는 실현불가능하다, 이번 상봉은 트럼프의 트위터글이 나온지 30여시간만에 실현된것으로 하여 새롭고 놀라운 수뇌외교전례를 창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속에서는 이번 상봉은 전적으로 **김정은**령도자의 견인력과 능란하고 매혹적인 외교술로 마련되였다, **김정은**령도자는 10일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중국과 미국이라는 세계적인 강대국 수뇌자들을 조선에 불러들이는 수완을 과시하였다, 렬강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상봉하였다, 트럼프의 조선입국은 특기할 사변으로서 전적으로 **김정은**령도자의 견인력과 능란하고 매혹적인 외교술의 결실이다, 일본이 주최한 G20수뇌자회의에 쏠려있는 세계의 이목을 순간에 조선반도에로 집중시키는 묘술을 발휘하였다, G20수뇌자회의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그의 최대 혜택자로 되였다는 격찬의 목소리들이 쏟아져나왔다.

조미관계에 대한 조선의 원칙적립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미국과의 관계문제에 대한 조선의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그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계속 로골화된다면 그에 화답하는 조선의 행동도 따라설것이며 미국이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옳바른 자세와 공유할수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나올 때 응할수 있다는것이였다.

그 전해에 조선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중지를 비롯한 중대하고도 의미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조미적대관계해소의 기본열쇠인 신뢰구축의 첫걸음을 먼

저 떼였다. 이어 북부핵시험장을 영구적으로 페기하는 용단도 내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과 함께 조미간에 새로운 관계력사를 써나간다는것을 알리는 6. 12공동성명에도 수표하시였다. 미국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그가 요청한 미군유골송환문제가 실현되도록 넓은 아량도 보여주시였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하려는 의지를 과시하시였다.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너무도 달랐다.

조선이 회담에 나선것을 그 무슨 제재의 결과라고 오판한 미국의 일부 정계인물들은 최대의 압박을 부르짖으며 대화분위기를 흐려놓았다.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군사연습들이 명칭만 바꾸어 재개되고있었으며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싸일요격을 가상한 시험도 진행되고있었다.

하노이수뇌회담에서는 조선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일방적인 요구조건을 내들었다.

조선의 요구는 신뢰구축을 통해 조미간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불과 불이 오가던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것이지 결코 제재해제따위가 아니였다.

상대방의 생각도 잘 모르면서 제재해제를 큰 선물이나 되는듯이 들고다니며 조선에 자기의 강도적요구를 내리먹이려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짓은 없을것이다.

국가와 인민의 근본리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는다는것이 조선의 움직일수 없는 립장이다. 때문에 조선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대화에는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의 전망은 어두울것이며 매우 위험할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국이 오늘의 관건적인 시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고 기대하며 가까스로 멈춰세워놓은 조미대결의 초침이 영원히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시였다.

기회는 쉽게 차례지는것이 아니다, 미국은 자기식의 대화방법으로는 백번천번 조선과 다시 마주앉는다 해도 조선을 까딱도 움직이지 못할것이며 자기 리속을 하나도 챙길수 없으리라는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할것이라는 목소리들이 국제사회의 여기저기에서 울려나왔다.

트럼프행정부이후 미국에 들어앉은 새 행정부 역시 판에 박은 타령을 하면서 저들이 의도하는대로 조선을 움직여보려고 어리석게 행동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들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앞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단호하고도 원칙적인 립장앞에서 물먹은 담벽처럼 허물어지고말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미

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추구하는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목적에 대한 조선의 원칙적립장을 명명백백히 밝히시였다.

2022년 9월말-10월초와 11월초에 진행된 조선인민군의 각종 군사훈련은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압박에 대한 조선의 공식적인 대응이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한 조선의 대답이라고 할수 있다.

세계를 뒤흔든 김정은열풍

싱가포르에서 본 모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식 정치무대에 등장하신 이래 언제나 국제정치계의 관심을 모으시였다.

하지만 그때까지 세계는 그이에 대해 신문과 인터네트의 글이나 사진으로만 인식해왔었다.

조미수뇌회담을 위한 싱가포르에서의 2박3일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떤분이신가에 대해 자기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수 있게 한 계기로 되였다.

국제사회가 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선 대단히 소탈하면서도 겸허하고 인정미가 넘치는분이시였다.

6월 11일 밤 그이께서는 두시간나마 싱가포르의 여러곳

을 돌아보시였다. 《마리나 베이 쌘즈》건물의 전망대에 오르시여 시내의 야경을 부감하시면서 싱가포르가 듣던바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건물들마다 특색이 있다고,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싱가포르의 훌륭한 지식과 경험들을 많이 배우려고 한다고 겸허하게 말씀하시였다. 참관과정에 열렬히 환영하는 시민들을 보시고는 따뜻이 손저어 답례하시였으며 참관을 마치시였을 때는 정부간부들이 밤늦게까지 동행하며 친절히 안내하고 소개하여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회담장에 먼저 도착하시여 나이가 많은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례의를 보여주기도 하시였다.

회담과정에는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례의와 배려, 기지있는 유모아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시였다.

국제사회가 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또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로련하고 세련된 외교술을 지니신 뛰여난 정치가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일반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트럼프에 비해 의미심장한 표현들을 구사하시면서 전 미행정부는 믿을수 없지만 당신과는 일이 될것같다고 하시면서 회담을 용의주도하게 이끌어가시였다.

트럼프대통령의 제의를 즉석에서 수락해주시는 넓은 도량도 보여주시였다. 뛰여난 언변과 철의 론리로 조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것을 만장에 인식시키시고 불과 몇시간만에 세계의 정치구도를 완전히 바꾸어놓는것과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도록 하시였다. 《세기적인 회담》기

간에 중간중간 여유있게 웃음을 보이시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시였고 공동성명에 서명할 때에는 거침없이 수표하여 트럼프보다 먼저 서명을 끝내고 기다리시는 여유도 보여주시였다.

트럼프대통령은 회담시 여러번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면서 《멋진분》, 《최고》라고 찬양하였다.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남긴 일화들

눈물터친 로드맨

6월 12일 새벽 싱가포르에 도착한 미국의 유명한 이전 롱구선수인 데니스 로드맨이 조미수뇌상봉과 회담과 관련한 자기의 심정을 눈물에 담아 표현하였다.

로드맨은 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5년전 미국과 대화하고싶다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의사를 미국측에 전달하였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조선방문후 미국에 돌아와 협박에 계속 시달렸고 집에도 갈수가 없었다고 당시의 심정을 떠올리며 울먹이다가 오늘은 정말 위대한 날이다, 나는 이런 날이 올줄 알았다, 이 모습을 보기 위해 내가 여기까지 왔고 너무 행복하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끝내 눈물을 터치고말았다.

언론들은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친구로 알려진 로드맨이 력사적인 조미수뇌회담성사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김정은**국무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의 이번 만남으로 그동

안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였음을 증명한셈이다.》 등으로 보도하였다.

덕을 본 싱가포르

조미수뇌상봉과 회담개최로 싱가포르가 큰 덕을 본것이 화제거리로 되였다.

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온 수천명의 기자들과 회담과 관련한 력사적인 장면들을 직접 보기 위하여 이곳을 찾은 수많은 관광객들로 하여 싱가포르의 호텔들은 여느때없는 호경기를 맞았으며 특히 식당과 상점들에서는 김치쌘드위치, 김치아이스크림, 《조미수뇌회담》문구가 새겨진 옷 등 갖가지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판매하여 큰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

싱가포르의 려행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화초원과 《마리나 베이 쌘즈》건물의 지붕우에 위치한 《스카이 파크》공원을 돌아보신 로정과 똑같이 정한 《**김정은**국무위원장투어》라는 관광로정을 새로 내놓았는데 첫날부터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있다고 한다.

한편 싱가포르조폐국도 조미수뇌회담기념주화를 만들어 비싼 가격으로 팔고있는데 그 수요가 넘쳐나 추가제작에 나섰으며 금화인 경우에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 대상자를 선발할 정도라고 했다.

외신들은 싱가포르가 다양한 착상으로 조미수뇌회담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고 전하였다.

특급경호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시 주최국인 싱가포르정부에서 취한 보안체계는 그 집중도와 조밀도에서 사상 류례없는것이였다.

창이국제비행장과 쎄인트 레지스호텔내부가 세계최고의 보안기재들과 특수성원들로 수차에 걸쳐 철저히 점검되고 호텔에서부터 수십m 떨어진 곳까지 차단벽이 설치되였다. 호텔창문들을 모두 천으로 가리우고 그 바깥쪽에는 보통사람의 키를 넘는 화분들로 촘촘히 둘러막아 호텔주변의 어느 건물에서도 호텔의 창문들을 볼수 없게 하였다.

6월 9일부터 쎄인트 레지스호텔로 들어가는 진입로 세곳에 림시검문소를 설치하고 인원들의 통행을 통제하였으며 호텔주변에 1m간격으로 이동식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감시체계를 세웠다.

경찰당국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타신 전용차가 이동할 때마다 경찰호위차량과 구급차를 포함한 35대의 차량들과 오토바이행렬을 동원하였으며 주변의 인도로와 차도로들에 사복경찰과 무장경찰들을 배치하는 등 물샐틈없는 호위진을 쳤다.

여기에 투입된 경찰들만도 5 000여명에 달하며 조미수뇌회담개최를 위한 경호비만 해도 2 000만S$(1 490여만US$)에 달하는 비용이 지출되였다고 한다.

기타 세부적인 문제들은 념두에 두지 않은것을 고려할 때 더 막대한 투자가 든것으로 추측된다.

세계의 언론들은 싱가포르당국이 **김정은**국무위원장을 최고의 국빈으로 맞이하였다, 싱가포르수상의 경호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호를 선보였다,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그이의 력사적인 방문에 싱가포르가 경호수준을 최대로 격상시켰다고 하였다.

특히 언론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안전을 위한 중국의 《특급경호》는 세계를 더 큰 충격에 빠뜨렸다, 중국은 싱가포르행직항로가 없는 조선에 자국령공을 열어주고 공해상구간이 많아 호위가 쉽지 않은 평양-상해-싱가포르로선대신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내륙항로인 평양-베이징-싱가포르로선을 제공하여 그이를 최대로 경호하였다, 중국은 국내의 최고급특별전용비행기를 보장하였으며 전투기편대를 동원하여 직접 **김정은**국무위원장이 탄 비행기에 대한 호위비행을 조직하는 등 조선에 대한 특급경호를 보장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세계에서 차지하는 확고한 지위와 권위를 보여주는것이라고 평하였다.

특별히 제정된 기념주화

미국에서 조미수뇌회담과 관련한 기념주화를 제작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와 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마다 기념주화를 제작하였다. 가까운 실례로 2009년 16대 미국대통령이였던 에이브러햄 링컨의 출생 200년을 맞으며 기념주화를 만든것을 들수 있다.

그러나 국가수반들사이의 회담과 관련하여서는 기념주화를 만든적이 없었다.

력사적으로 놓고볼 때 얄따회담과 포츠담회담, 미로, 미중, 미영, 미프를 비롯한 국가수반들간에 세계력사를 변화시키고 국제정치정세발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 회담들이 많았지만 그와 관련한 기념주화는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는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력사적인 회담을 뛰여넘는 《세기적인 만남》으로 명명하고 력사에 없는 기념주화를 제작하였다.

기념주화앞면의 맨 꼭대기에는 《평화회담 2018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고 우측에는 공화국기를 바탕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상을 모시고 둘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은**》이라는 글자를 새겨넣었다.

김정은칭송열풍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계기로 세계는 **김정은**열풍으로 끓어번졌다.

세계의 모든 신문, 방송, TV, 통신들이 승벽내기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상사진문헌들을 모시고 《21세기의 또 하나의 거대한 력사적사변》, 《조선령도자 전략적이며 능숙한 지도자로 국제무대에 떠오르다》 등의 제목으로 특집보도하였다.

많은 나라 언론들은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조선민족뿐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주도세밀하고 완강한 실천력에 감탄을 금할수 없다, 《**김정은**식세계화》가 닻을 올리고 순항하고있다고 평가하였다.

일본의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김정은**국무위원장은 역시 유능한 정치가이다, 노벨평화상수상자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이다 등의 찬사들을 아끼지 않았다.

언론들은 **김정은**국무위원장이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도착하신 때로부터 《세기의 만남》을 결속하고 떠나시는 2박3일동안의 《력사적인 장면들》을 통해 세계적인 지도자의 위상을 목격하게 되였다고 하였다.

프랑스의 AFP통신을 비롯한 서방언론들은 **김정은**국무위원장은 50여시간의 싱가포르체류기간 전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였다,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사회주의국가지도자의 상징인 인민복차림으로 나선것은 서양식양복을 입은 트럼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면서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겠다는 굳센 의지를 보여준 《유명정치인》으로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였다고 평하였다.

미국의 행정부관계자들과 전문가들도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언행과 유모아, 행동은 훌륭하고 완벽하였다, 당당함과 탁월한 재능이 안겨왔다, 거침없고 호방한 모습이였다라고 하였다.

세계정치가들속에서 《강력한 지도자》로 불리우고 있는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언론사대표들과의 면담에서

김정은령도자에 대해 《판단력이 빠르고 매우 영명하며 세련되고 로숙한 정치인》, 《가장 만나뵙고싶은 지도자》이시라고 말하였다. 부쉬행정부시기 미국무장관이였던 라이스는 CNN방송을 통하여 조선의 령도자는 실제적으로 매우 현명한분이시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였다.

자주, 평화, 친선단결을 위하여

조중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추동한 첫 중국방문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전세계가 급변하는 조선반도정세에 이목을 집중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예측을 하고있을 때 그이께서는 2018년 3월 력사적인 첫 외국방문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였다.

력사의 그 어떤 역풍속에서도 사회주의위업수호에 대한 견결한 의지와 순결한 의리로 조중 두 당, 두 나라 로세대 령도자들께서 마련해주신 뉴대의 전통을 확고히 고수해가시려는것은 그이의 투철한 정치적신념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방문기간 공식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전례없이 격변하고있는 조선반도의 새로운 정

세속에서 위대한 조중친선의 오랜 력사적전통과 혁명적의리를 변함없이 지키며 조중 두 나라관계를 대를 이어 훌륭히 계승발전시켜나갈 일념을 안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자신의 첫 외국방문의 발걸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가 된것은 너무도 마땅한것이며 이는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이어나가야 할 자신의 숭고한 의무로도 된다고 언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력사적인 중국방문으로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공동의 투쟁에서 맺어지고 력사의 온갖 돌풍속에서도 자기의 본태를 지켜온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강화발전시키는것이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라는것을 과시하시였다.

그이께서 력사적시기에 중국방문을 단행하심으로써 조중관계발전과 세계평화번영위업수행에서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력사적인 조중수뇌상봉은 조중관계가 진보와 미래지향의 선에서 보다 공고해지고 강화발전되여나갈것임을 시사해주었다. 습근평총서기는 공식연설에서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샘물은 마르지 않는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첫 중국방문은 조중친선단결을 보다 굳건히 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과감히 추동한 사변적계기였다.

습근평총서기의 특례

2018년 3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베이징에 체류하신 기간은 1박2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습근평총서기는 여러 차례나 그이와 상봉하였다.

중국에서는 당총서기가 외국수반의 방문행사에 2일간이나 여러 차례 만난 례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한다.

중국관계자들은 습근평총서기가 중조친선의 력사가 어려있는 낚시터국빈관 양원재에서 **김정은**동지와 리설주녀사를 위하여 가정적분위기의 특별오찬까지 마련해드린것은 그이에 대한 최고의 례우로 된다고 말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김정은**동지께 대형경태람을 선물로 드렸다. 대형경태람은 건강장수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상징하는 꽃병으로서 중국의 전통적인 관례에 의하면 귀한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에게만 선물하는것이라고 한다.

서방언론들과 정세전문가들은 중국외교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 《**김정은**국무위원장에 대한 례의는 다른 나라 수반들에 대한 공식적인 영접과는 전혀 달랐다. 그이의 방문시에는 습근평과 그의 최측근인물들이 거의다 나왔다. 습근평지도부집권후 중국외교에서 있어본적이 없는 최고의 례식이다.》, 《지난해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베이징에서 정치국 위원 양결지의 마중을 받고 한번의 공식연회에 초청되였다. 하지만 **김정은**국무위원장은 습근평총서기의 오른팔, 왼팔로 불리우는 간부들의 영접을 받았고 특히 낚시터국빈

관 양원재에서 특별대접을 받았다.》, 《가는 곳마다 습근평부부의 안내를 받는 등 〈황제의전〉과 같은 대우를 받음으로써 미국대통령을 훨씬 릉가하는 지위를 보여주었다.》고 전하였다.

로씨야방송은 《중국의 각도에서 분석하면 **김정은**령도자의 이번 방문시 중국이 보여준 환대는 완전히 공식방문을 릉가한 환대이다.》라고 평하였다.

2019년의 첫 정치일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첫 정치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시였다.

그 전해에 그이께서는 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끈 사변들을 이끌어내시는 속에서 3차례나 중국을 방문하시여 국제사회의 주목을 끄시였다.

그에 이어 그이께서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신것은 2019년이 조중외교관계설정 70돐이 되는 해라고 볼 때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발전에서 의의가 큰 방문이라고 볼수 있었다.

세계의 언론들은 이번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중국방문이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발전에서 특별히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전하였다.

조중인민은 오래전부터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어깨겯고 싸웠다. 두 나라 대지우에는 자유와 해방, 령토완정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유명무명의 무수한 선렬들의 피가 슴배여있다. 인민의 새 사회가 세워진 이후 장구한 기간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공동의 투쟁속에서 두 나라 당과 인민은 긴밀히 지지협조해왔으며 이것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세월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고도로 중시되고있으며 두 나라사이의 단결과 협력도 날을 따라 강화되고있다.

중국방문과정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중친선은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친히 맺어주시고 키워주시였으며 특수한 정세하에서 더욱 빛나게 발전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과 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중국측과 일치단결해나갈것이며 두 당, 두 나라의 긴밀한 협조의 전통을 계승하여 조중친선관계를 계속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올해에도 중국동지들과 굳게 손을 잡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고 후세에 길이 전해질 조중친선의 아름다운 서사시를 계속 써나갈것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습근평총서기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정초에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신것은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중국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을 품고있다는것을 충분히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김정은**동지와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중조래왕의 새 력사를 개척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중조관계는 이미 새로운 력사의 한페지를 펼치

였으며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중국당과 정부는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고도로 중시하고있으며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립장이라는것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불과 9개월 남짓한 사이에 네번째로 이루어진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상봉은 이 세상 가장 지심깊고 억세인 뿌리에 떠받들려 진정으로 신뢰하는 동지관계,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불패의 친선관계로 승화발전된 조중 두 나라사이의 훌륭하고 위대한 단결을 다시금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조로관계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다

2019년 4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씨야련방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을 단행하시였다.

새해의 첫 정치일정으로 단행하신 중국에 대한 전격방문, 2월에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과 3월의 웰남공식친선방문 등 빠르고도 주동적인 외교활동을 벌리신 그이께서는 그에 이어 4월에 로씨야련방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을 단행하시여 조로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세계언론들은 그이의 로씨야련방방문을 두고 《전통적인 조로친선의 굳건함을 과시한 력사적계기》, 《주동적이고 공세적인 외교적행보로 특징지어지는 **김정은**식외교의 전형

적인 실례》, 《조로관계발전의 새 력사, 새시대를 열어놓은 일대 사변》이라고 평하였다.

그이의 로씨야련방방문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정세발전의 관건적인 시기에 이루어진것으로 하여 보다 큰 주목을 끌었다.

2018년 조선은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의지로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중지, 미군유골송환문제를 실현시키는 등 여러가지 실천적조치들을 취하여 국제사회의 지지와 리해,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겉으로는 조미관계개선과 평화를 운운하면서도 실지로는 조선에 대한 제재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는 조선이 수용할수 없는 요구, 전혀 실현불가능한 방법만을 줄곧 내세우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정세발전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였다.

결국 조미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지고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원점으로 되돌아갈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을 단행하시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뿌찐대통령과의 상봉을 통하여 훌륭한 친분관계를 쌓으시였으며 전략적인 뉴대를 일층 강화하시였다.

두 나라 령도자들께서는 이번 상봉과 회담이 제2차 조미수뇌회담이후 불안전한 조선반도정세를 전략적으로 유지관

리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유익한 계기로 되였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평가하였으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려정에서 전략적의사소통과 전술적협동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씨야련방방문이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발전에 주는 의미는 자못 큰것이였다.

이미 조중 두 나라 령도자들사이의 여러 차례에 걸치는 상봉과 회담으로 조중친선관계를 굳건히 한 조선은 이번에는 로씨야련방과도 전략적뉴대를 강화하였다.

자강력으로 제재를 짓부시며 자기의 발전을 이룩해나가는 조선이 지역정세발전에서 무시할수 없는 중, 로 두 대국과의 전략적관계까지 가일층 강화해나가고있는것이다.

미국은 세계면전에서 대세에 역행하여 조선반도문제에 대한 평화적해결에 반기를 드는것으로 되여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씨야련방방문과정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태도에 따라 좌우될것이며 조선은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할것이라고 언명하시였다.

세계의 언론들은 조선령도자의 이번 로씨야방문이 조로관계발전과 지역안전강화에 커다란 기여를 한 사변적인 계기로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이번 수뇌상봉과 회담은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세계렬강들의 대화상대자이라는것을 다시금 실증하였다. 누구나 다

김정은국무위원장과의 상봉과 회담을 희망하고있다.

뿌찐대통령은 외교계에서 지각생으로 평가받던 관례를 깨뜨리고 30분전에 회담장에 도착하여 **김정은**국무위원장을 성의있게 영접하였다. 이것은 로씨야측이 로조관계에 상당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다는것을 시사하고있다.

조선령도자와 뿌찐대통령은 서로 뜨겁게 악수를 나누고 웃음을 지으며 회담장으로 입장하였다.

뿌찐은 **김정은**령도자와의 상봉후 기자들에게 **김정은**령도자는 해학적이며 실속있고 상당히 성실한분이라고 찬양하였다.

이번 수뇌회담에서 공동문건이나 공동선언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다른 수뇌회담들보다 더 큰 의의를 가진다.

…

로씨야대통령공보관 드미뜨리 뻬스꼬브는 TV로씨야 1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령도자는 모든 부문에 정통하고 제시되는 문제들에 령활하게 대처하였으며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립장이 명백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조선령도자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완전히 세련된 지도자이시다라고 언급하였다.

사회주의력량의 단결을 위하여

2019년 3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웬남사회주의공화국 공식친선방문은 사회주의나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대수령들의 뜻을 받들어 피로써 맺어진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것은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일관한 립장이라고 밝히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적, 정부적래왕을 활발히 벌리며 모든 분야에서 협조와 교류를 정상화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실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웰남친선협조관계를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과 미래를 안겨주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웰남지도부와 손잡고 나아갈 의지를 확언하시였다.

그이의 이번 방문으로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피로써 맺어지고 온갖 시련속에서 공고화된 조선과 웰남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과시되게 되였다.

그이의 웰남방문은 조선웰남친선을 세기와 세기를 이어 변함없이 계승발전시키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뉴대를 가일층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으로서 두 나라 친선의 년대기우에 빛나게 아로새겨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웰남방문은 세계정치무대에서 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되였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6년 5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사회주의는 반제자주

의 핵심력량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라고 하시였다. 실지로 당 제7차대회이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였다.

그이의 여러 차례에 걸치는 중국방문과정에 조중 두 당, 두 나라는 공동의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특히 대외관계분야에서 두 나라 당과 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자주적립장에 대한 서로의 리해와 지지를 표명하였다.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는 진정으로 신뢰하는 동지관계,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불패의 친선관계로 발전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꾸바공화국과의 친선협조관계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8년 11월 평양을 방문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를 동지적우애로 맞이하시고 그와의 회담을 통하여 두 나라의 위대한 수령들께서 혁명적원칙과 동지적의리, 사회주의원칙에 기초한 특수한 친선관계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발전시켜오신데 대하여서와 새로운 정세와 환경속에서도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두 나라사이의 친선의 력사와 전통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더욱 공고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앞으로도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이며 동지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오늘의 새

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더욱 확대강화해나갈 확고부동한 립장과 의지를 천명하시였다.

두 나라 지도자들께서는 사회주의기치를 함께 추켜든 손을 절대로 놓지 말고 두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곧곧이 전진시켜나갈것을 약속하시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디아스 까넬의 조선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두 나라 인민의 전통적인 우정과 신뢰, 친선단결의 불패성을 과시하는 계기로 되며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의 표시로 된다고 하시였다고 전하였다.

세계의 통신, 신문, 방송, 인터네트홈페지들도 《형제와 같이 친근하다! **김정은**령도자께서 꾸바지도자와 함께 차를 타고 손을 높이 드시다》, 《꾸바와 조선은 멀리 떨어져있지만 더욱더 가까와지고있다》 등의 제목들로 광범히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반제자주의 핵심력량인 사회주의나라들의 단결을 강화하심으로써 지배와 예속,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며 세계자주화위업을 힘있게 추동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는것이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평이였다.

맺 는 말

위인이 력사를 창조한다는 말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치무대에 공식등장하신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10여년간 누구나 쉬이 이룰수 없는, 너무나 거창한 전변의 력사를 창조하시였다.

그이처럼 력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그것도 력사상 가장 류례없는 난관과 시련속에서 국가를 용의주도하게 령도하시여 그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끌어올리신 위인은 일찌기 없었다.

세계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활동 하나하나에 시선을 집중하고있으며 그이께서 날에날마다 안아오시는 미증유의 사변들에 탄복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리고 누구나 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류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위대한 새시대를 조선에 펼치시리라는것을…

세계가 본 김정은령도자

집 필 : 김철혁 한수영
편 집 : 김대호
편 성 : 김현희
장 정 : 리진우
교 정 : 하성준
낸 곳 : 외국문출판사
발 행 : 주체111(2022)년 12월

ㄱ-22088000083

전자우편(E-mail): flph@star-co. net. kp
http://www. korean-books. com. kp